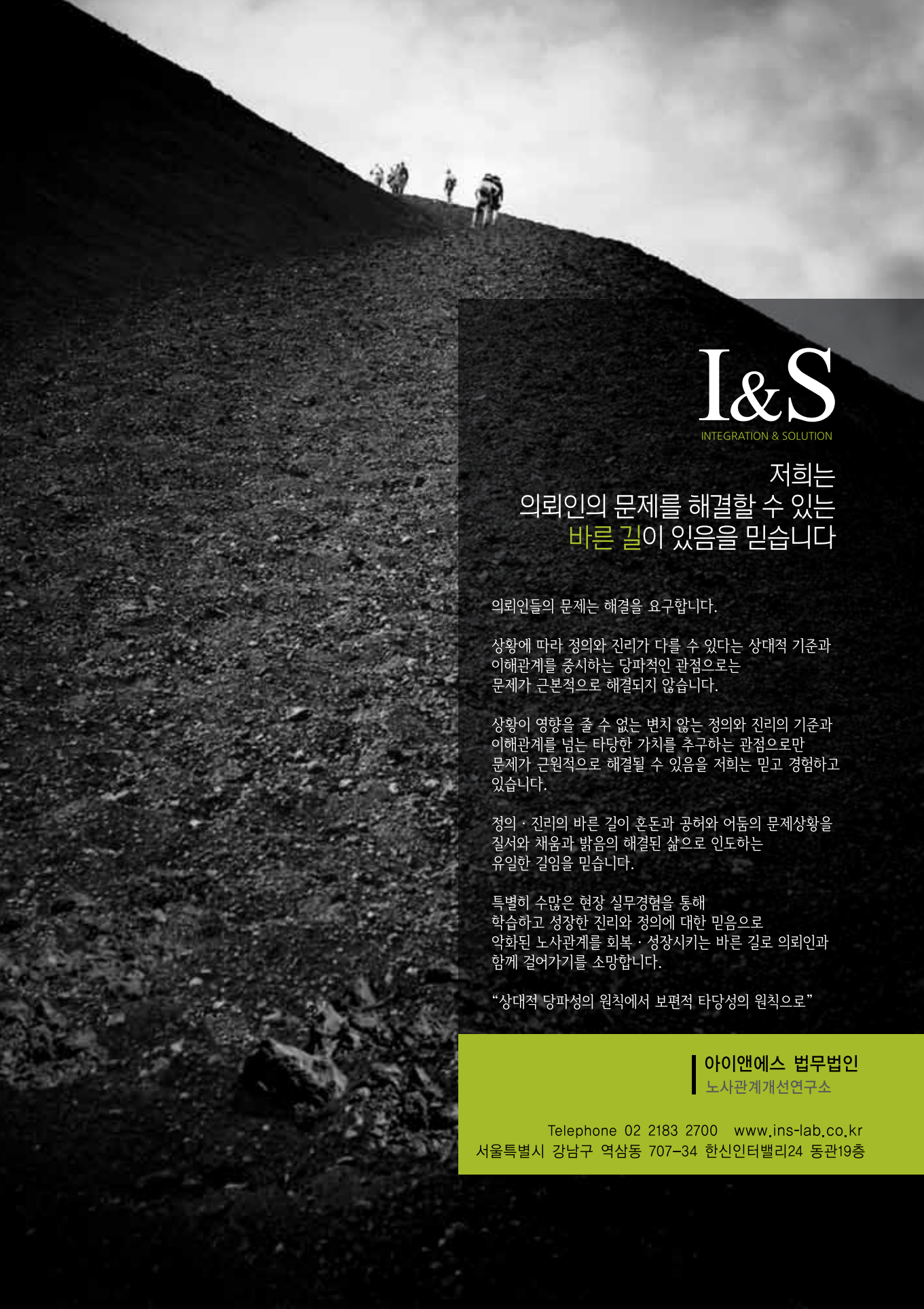


I&S

INTEGRATION & SOLUTION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만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 · 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악화된 노사관계를 회복 · 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19층

상대주의가 아닌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 제기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며,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가르치는 정통 기독교가 어떻게 진리, 가치, 구원, 원칙 등이 원칙적으로 다원적이라고 주장하는 세상과 공존할 수 있는가?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는 가장 직접적이고 뼈에 닿는 도전일 수밖에 없다.

고대 사회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영원불변의 본질(essence), 실체(substance), 원리 같은 것으로 설명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그림자며 표피적인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양하며 무질서하게 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배후 혹은 그 뿌리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본질, 실체가 있고 불변의 원칙에 따라서 생성되고 변화한다고 믿었다. 그런 유산은 지금도 자연과학에서 그대로 남아 있다. 눈에 보이는 강물, 얼음, 구름은 현상일 뿐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H_2O, 나아가서 수소(H)와 산소(O)가 그 실체며, 그것은 섭씨 0도에 고체가 되고 100도에 기체가 된다는 법칙은 불변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9세기부터는 사회현상도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고 이런 시도는 실증주의(positivism)란 이름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서양에서는 17세기부터 인류문화가 발전(progress)한다는 미래지향적 역사관이 자리잡았다. 그런데 모든 문화는 동일선 상에서 발전하지만 그 선봉에 서양문화가 서 있다고 믿었다. 이런 서양문화 우월주의 (ethno-centrism)는 20세기 초까지 건재했고, 서양의 식민지였거나 서양의 우수한 과학문명에 큰 인상을 받은 비(非)서양문화들도 대부분 그 우월성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아직도 자주 사용되는 '선진국', '후진국' 이란 표현에서 그 유산을 볼 수 있다. 그때까지는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은 허용되었지만 문화 상대주의는 생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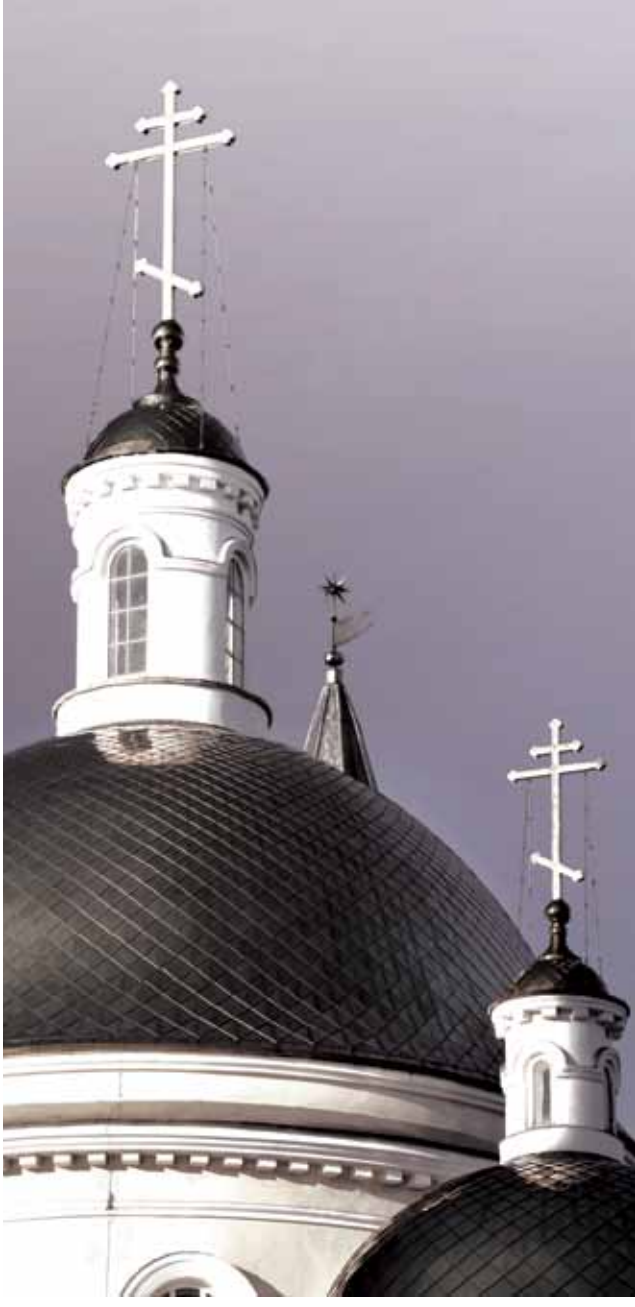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 주로 문화인류학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성이 주장되기 시작했다. 독일태생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보아스(F. Boas)가 캐나다의 이누이트(Inuit) 족 문화를 연구한 뒤 "이누이트 문화는 서양문화에 뒤떨어진 문화가 아니라 서양문화와 다른 문화"라고 주장하여 서양문화 우월주의나 문화가 단일선상에서 발전한다는 사상을 크게 흔들었다. 1948년 국제연합(U.N)이 〈보편인권선언〉을 준비하고 있을 때 문화다원주의 대변자 헬스코비치(M. J. Herskovits)가 회장이었던 미국문화인류학회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은 유명하다. '인권'의 이해는 문화마다 다른데 국제연합이 '보편'을 논의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북한이나 중국이 환영할 만한 비판이다. 비록 국제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연합은 그 항의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문화 다원주의는 오늘날 전 세계에 거역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말았다.

모든 문화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종교인만큼 문화 다원주의는 불가피하게 종교다원주의를 함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도 종교다원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힉스(John Hicks), 맥커리(John Macquarrie)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구원이란 정점으로 올라가는 길은 기독교, 불교, 이슬람 등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기독교는 문화 다원주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문화는 우월하고 어떤 문화는 저열하다고 판단할 보편적인 기준은 없다. 모든 문화에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 문화의 어떤 요소는 잘못되었고 어떤 다른 요소는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상부상조 제도는 칭찬할 수 있고 인도의 과부 화장제도나 중부 아프리카 여자 할례제도는 그것이 그들 문화에서 아무리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우리는 강력하게 비판해야 한다. 한 문화 전체의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한 문화가 가진 어떤 특정한 요소를 칭찬하거나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 상대주의는 인정하되 도덕적 상대주의는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본질에 어긋난다. 본질상 모든 종교의 신자는 자기 종교의 우월성과 절대성을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종교 신자도 그렇게 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예의로 간주해야 한다.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대표주간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발행인	김승욱	중앙대 교수,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편집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SFC문화연구소장, 서강대 박사
	김정효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C-LAMP) 주임교수, 파리제10대 경제학 박사
	박상은	안양샘병원 원장, 고려의대 외래교수,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의학박사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前) 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신국원	총신대 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우종학	서울대 교수, 예일대 천체물리학 박사
	이승구	합신대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류대 신학박사
	조성돈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라이프호프 운영위원장, 기윤실 본부장, 마르부르크대학 신학박사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前) MBC 워싱턴 특파원 및 뉴스 앵커, iMBC 사장, CGN TV 대표
실무진	이원우	미디어펜 기자, 시사주간 미래한국 (前) 편집장, 2014년 자유경제원 자유의 밤 젊은 자유인상 수상
	황정희	JnD 디자인 실장, 월간 〈과학과 기술〉, 계간 강원랜드〈다시, 꿈〉, 〈위즈플러스〉, 격월간 〈국악누리〉 등 다수 디자인
	신효영	월드뷰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간사, 총신대 석사

손봉호 교수

김승욱 교수

강진구 교수

김정효 교수

김태황 교수

박상은 교수

송인규 교수

신국원 교수

우종학 교수

이승구 교수

조성돈 교수

조영길 변호사

조정민 목사

이원우 기자

황정희 디자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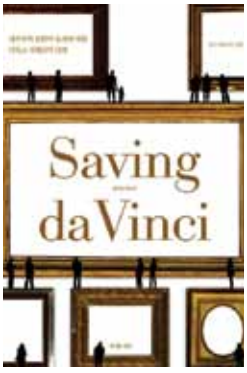
신효영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임원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의원 ((前) 총신대 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강인 (엘타워 대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직커뮤니티 목사)
	감사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실행위원회	위원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부위원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신국원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I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Contents

WORLDVIEW · JUNE · 2015



COVER STORY

06 커버스토리 지금이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_마이클 고힌

SPECIAL

02 대표주간 상대주의가 아닌 다원주의_손봉호
20 기획칼럼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기독교 학문_강영안
30 기획칼럼 다원주의 사회와의 선교적 대면_신국원
34 기획칼럼 다원주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_연승철
37 편집인추천 함께, 더 깊고도 넓게

COLUMN

40 메디컬칼럼 Cure & Care 피터 드러커와 콩팥_최현일
586 특집 과학의 겸손, 그리고 진화론을 포용하는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우려_현창기

CULTURE

67 편집#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 주세요_신효영
68 유머 국수_손봉호

BOOK REVIEW

44 서평 세이빙 다빈치_서성록
49 서평 리포밍 처치_김정일
54 다시보는 책 왜곡된 진리_이춘성

NEWS

64 사무국 뉴스
65 6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WORLDVIEW

2015년 6월호 WORLDVIEW 통권 180호

표지인물 마이클 고힌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러스트 김규상, 신선영
제 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인 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 화 02-754-8004
팩 스 0303-0272-4967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102호 (한강르네상스빌 A동)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
페 이 지 facebook.com/worldviewmagazine
블 로 그 http://cworldview.blog.me
이매거진 m.worldview.or.kr

What Time Is It?
지금이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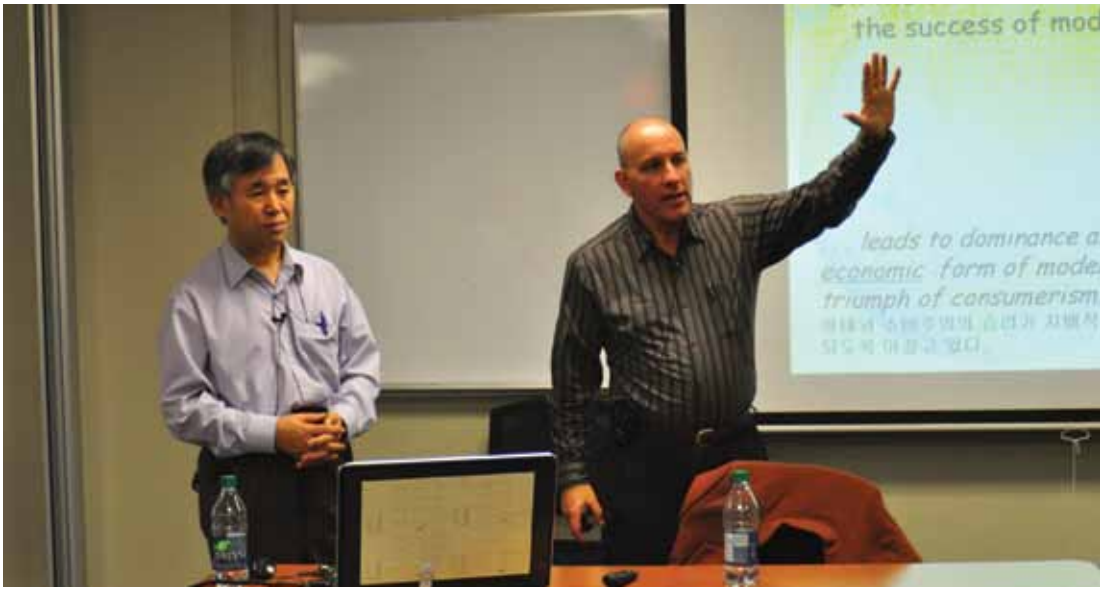
마이클 고힌 Michael Goheen

본 칼럼의 내용은 마이클 고힌(Michael Goheen) 교수가 캐나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에서
〈What Time Is It? Understanding the Religious Worldview Spirits of Our Age:
–Postmodernity, Economic Modernity, and Consumerism〉 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내용 중 일부를 VIEW와 마이클 고힌 교수의 협조를 구하여 게재한 것입니다.

What Time is it?

브라이언 왈시(Brian Walsh)와 리차드 미들톤(J. Richard Middelton)은 모든 세계관은 다음의 4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우리가 평생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답하려면 가장 먼저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악은 왜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면 어떻게 고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질문은 세계관 논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톰 라이트(N. T. Wright)는 세계관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변한다면서 'What time is it?'이라는 질문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 커다란 이야기의 어디쯤에 속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덴동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시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왔으나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그 사이 어디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화적인 이야기 속 어디쯤에 있는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고 우리를 만들어 가는 세계관적인 혹은 종교적인 시대정신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저는 서구 문화에 속했지만, 여러분은 한국에 있는데 어째서 서양문화의 어디쯤에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하냐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에서 시작된 세계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오늘날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좋든 나쁘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정신(spirit)은 무엇일까요?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가장 시급한 선교적 과제는 현대성(modernity)에 대한 사명이며, 이를 위해 지성이라는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과정들의 이면을 샅샅이 조사하여 숨겨져 있는 신조(Credo)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조(Credo)란 '나는 믿는다'라는 뜻의 라틴어로 영어의 credo, confession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 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결혼, 경제, 교육 등 문화적인 현상들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시스템이 있고, 그 속에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가는(shaping) 숨겨진 신조(Credo), 숨겨진 세계관, 숨겨진 종교적 믿음이 있습니다. 뉴비긴은 눈에 보이는 문화적인 현상들을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만들어 가는 숨겨진 신조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적, 세계관적인 힘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입니다. 포스터모더니티는 점점 확장되어 계몽주의의 믿음 즉, 모더니티에 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의 세계화 문제입니다. 계몽주의 정신이 오늘날의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 세계화가 되었구요. 사실 현대화와 세계화는 부딪힙니다. 현대화는 경제적인 현대화에 대해서는 'YES'라고 하면서, 포스트모더니티에 대해서는 'NO'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소비주의입니다. 상품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비주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날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 종교****입니다.*

첫 번째 현대 종교,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

첫 번째는 모더니즘에 도전하는 포스트모더니즘입니다. 기존의 경제적인 모더니티를 바꾸고 있죠.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은 오늘날의 소비주의를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계몽주의는 낙관적인 미래를 약속했지만, 우리는 오늘날 인본주의의 실패와 몰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을 줄 것이라던 장밋빛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포스트모더니즘이 발현된 것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 학자들은 모더니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준 것은 환경 파괴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부유하게 된 사람은 극소수이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졌고 그 차이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10억명이 가난한 10억명보다 30배 더 잘 산다고 하던 것이 지금은 90배로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계몽주의가 약속했던 미래는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에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대단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편리보다 위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 덕분에 진보했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인간이 전멸할 위협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더니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 포스트모던 심리학자가 자신의 저서에 모더니즘이 초래한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했는데, 그중 두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3~40년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body-image(신체에 대한 관심)'를 예로 들겠습니다. 오늘의 기술은 사람들에게 자꾸만 완전한 이미지를 제시하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이미지에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포스트모던 심리학자는 그 문제가 기술의 발전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말합니다. 심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장애도 생겼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적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포스트모던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계몽주의로 보고, 더 이상 모더니즘과 계몽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포스트모던 심리학자인 데이빗 하비(David Harvey)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세기는 죽음의 수용소와 암살단들, 군국주의, 양차 세계대전,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전멸의 위협을 경험했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험으로 진보에 대한 낙관주의가 철저히 무너졌다. 계몽주의, 즉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좋은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18세기의 낙관론은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다. 20세기의 더 큰 악몽은 계몽주의 프로젝트가 스스로를 대적하여 인간 해방이라는 미명 아래 전 우주적 억압체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들은 계몽주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리오타르(J. P. Lyotard)는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포스트모더니즘을 정의하면 거대담론에 대한 불신'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계몽주의가 약속했던 진보에 대한 신념, 신앙을, 과학과 기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만 생길뿐 해결책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진보'라는 거대담론, 큰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이성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아예 진리 자체가 없다고 보거나 이성 외에 감성과 같은 다른 것을 통해 혹은 그 커뮤니티의 합의를 통해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독점진리를 의심합니다. "진리에는 다양한 버전이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이러한 다원주의를 지향합니다. 기독교, 인본주의, 불교 등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권위에 대해 반발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성, 계급, 종교, 문화와 가난, 그리고 소외, 환경에 대한 부당함(injustice)에 대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관점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정해 주거나, 비판하거나.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에 찬성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모더니즘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는 것이 모더니즘의 전제였는데 합리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성적 측면뿐 아니라 비합리적 측면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지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곧 과학적인 진리조차도 다른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세계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옹호했던 이유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 지식이 형성되기(shaping) 때문에 각자의 세계관(view)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주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주관적인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지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지식에 영향을 미치며, 복음의 진리는 어떤 과학적 진리보다도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다양성—다원성(plurality)이 아닌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포용력을 갖추게 한다는 점입니다. 모더니즘은 모든 것을 규격화하고 획일화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다양성, 다면성을 존중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 바로보기

반면에 비판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모더니즘에서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우상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우상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원성와 다양성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다원주의는 진리에 대한 차이 자체를 환영합니다. 완전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상대주의, 이것이 위험한 우상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평가할 때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긍정해야 할 면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새로운 우상이 만들어질 가능성 또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아주 나쁜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가 포스트모던사회에 살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더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면도 있죠. 성공적인 면으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 사회가 많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시절, 고향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매우 큰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모더니즘을 거치며 부가 상당히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를 누리고 있죠. 확실히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자유롭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사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모더니즘 하에서 전 세계의 사법제도가 만들어졌고,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에 진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 학창시절은 파워포인트가 아닌 OHP(시청각 교육용 투영기) 시대였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혜택이죠. 약은 또 어떤가요? 현대 의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에 감사합니다. 현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음영의 한 면입니다.

두 번째 현대 종교, 경제의 세계화

경제 성장은 20~21세기의 매우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쉬(Christopher Lasch)는『진보의 이론』에서 우리는 과거에 비해 더 도덕적(moral)이고 더 윤리적(ethical)이라 생각하지만 세계1차대전, 2차대전 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더 정의로운 세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이 세계에는 너무나 많은 부정의가 있다,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온 세계는 상대주의로 편만하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실패했는데 한 가지만 성공했다고, 그것은 바로 기술적 진보와 경제적인 부유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보적인 이데올로기의 내적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곳은 아담 스미스와 그 전임자들이다." 21세기 진보의 근원을 찾으려면 아담 스미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수백 년 전, 그는 이미 기술이 경제적 진보의 추동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은 이 진보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라쉬는 진보라는 개념이 욕구의 무한성과 편리함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꾸준히 상승하여 대중이 풍요의 문화에 쉽게 편승되리라는 것을 가정하지 않고는, 어떤 비판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포스트모더니즘은 진보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소수가 경제적인 부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편리하고 쉽게 만드는지 묻는다면 예든 아니오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더니즘이 주는 혜택에 'yes' 라고 응답한 겁니다. 지금 세대가 부모 세대에 비해서 얼마나 더 안정적인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세계관의 문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라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모든 진보는 그렇지 않은데 단 하나, 물질적 풍요에 있어서만은 진보라는 개념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진보라는 개념이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결혼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결혼의 진보가 아니죠. 거기에는 진보가 없습니다. 오히려 퇴보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진보의 개념에 치명타를 날렸고 진보는 K.O패 당해 무너졌습니다. 단 한 가지 진보만 제외하고요. 그 한 가지 진보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혹독한 비판을 모두 견뎌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을 통한 경제적 진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강력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팁니다. 그 진보가 바로 오늘 이 시대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모더니즘의 세계관이 바로 전 세계의 모든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개념인 'unify(통합하다)'를 봅시다. 경제 문제가 강력하게 세계 전체를 통합하여 묶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상태를 '비대칭적인 성장'이라고도 말합니다. 한 쪽의 부가 다른 쪽의 가난으로 나타납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정의입니다.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의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5이 전 세계의 1/2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물건을 만들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톰 라이트(N. T. Wright)와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이 점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라 했습니다.

약 20년 전, 레슬리 뉴비긴과 함께 앨라배마(Alabama)주의 버밍햄(Birmingham)에 있는 흑인해방운동을 기념하는 박물관에 갔습니다. 미국 흑인 노예들의 역사를 아주 생생하게 전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백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어떻게 학대했는지 보면 공포감에 전율이 느껴집니다. 학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흑인 노예들을 학대한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흑인 노예들을 저렇게 대접할 수 있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역사적으로 오래된 일이지만, 당시의 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악인 줄 몰랐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200년 뒤에 후손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그 당시 사람들이 저질렀구나." 하고 말할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당시 노예를 착취했던 크리스천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눈이 가려져 있을까요. 100년 후의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말할 만한 것들은 없는 걸까요?

뉴비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묻게 될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세계화로 이렇게 경제적인 부정의가 심화되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었는가." 라고 말이죠.

신약학자인 리차드 바캄(Richard Bauckham)은 "오늘날 우리를 형성(shaping)하고 있는 세계관은 포스트모던 세계관이 아니라 경제적인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 담론이다.", "세계의 거대담론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끝이 아니다. 점점 더 증가하는 경제적인 세계화다. … 이것은 새로운 제국주의다. … 이데올로기(세계관)로서 세계화란 진보의 옛 개념에서 나왔지만 진보를 경제성장으로만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능력이나 자율성에 여전히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나, 기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정의, 교육 등 사회구조에 있어서도 동일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진보와 성장에 대한 동일한 믿음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제치고 경제적인 성장으로만 환원시키는 것, 이것이 경제적인 목표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제가 10대일 때보다 훨씬 더 경제가 지배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경쟁적으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의 삶을 분별해 보기 바랍니다.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제공하는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하는 우상숭배를 분별하는 비판적인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경제논리에 물든 세계화, 바로보기

하지만 우리는 세계관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비판적 안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오랜 친구인 신국원 교수와 서울의 지하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한 곳을 보고 있더군요. 기술의 편리함에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만약 모든 것을 기술과 경제문제로 환원시킨다면 삶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비판의 안목, 양면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으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권(rights)입니다. 인권은 서구사회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과학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까? (저는 특별히 전자레인지를 만든 기술에 감사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누리는 상대적인 자유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악한 점들도 있습니다. 경제문제로 인한 우상숭배, 기술로 인한 환경 파괴, 심화되는 빈부격차 등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피조세계 중 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생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 기술, 경제, 이런 것들은 큰 세계관의 한 부분입니다. 지나친 강조가 우상숭배가 되어 누군가에게는 좋지만 다른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것이 환경을 파괴하지는 않은가, 그것이 다른 전통적인 가치들을 파괴하지는 않는가, 그것이 경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가. 분명한 것은 경제적인 세계화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문화적인 것을 파괴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리차드 바캄

세 번째 현대 종교, 소비주의 Consumer Society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적, 세계관적 정신(spirit)인 소비주의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양쪽 모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잃어버린 삶의 의미의 빈자리에 상품과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을 집어넣은 것이 소비주의입니다. 그것을 위한 물품과 경험들은 바로 세계화에 의해 채워질 수 있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비주의야말로 오늘날 가장 강력한 우상숭배적인, 종교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마일스(Steven Miles)도 "소비주의는 현대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 버렸다. 또한 종교와의 유사점도 있는데 결코 우연이 아니다. 소비주의는 틀림없는 20세기 후반의 종교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소비주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문화 속에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데이비드 웰스(David F. Wells)는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만들고,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하는 것'을 구조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물건 이야기(The story of stuff, 2007)》는 도대체 소비주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창의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소비주의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디자인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답하고 있지요. 현대의 소비주의는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며 하루 하나 생산하던 것을 백 개, 천 개, 자동화 되면서 소비와 균형을 맞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신발을 두 켤레 가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발을 몇 켤레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게 만들었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지나치게 생산을 많이 하는 우리 경제는 소비를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비, 즉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에서 우리의 영적 만족감, 자아충족감을 찾도록 사회가 요구한다는 것이죠. 많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사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파는 것이죠. 이것을 사기만 해도 당신은 아주 괜찮은 존재가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물건이 제공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판타지를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비하고, 소모하고, 닳게 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폐기할 물건들을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차를 타고 살도록, 그것을 점점 더 비싸게 소비하게끔 해야 한다." 이것은 마케팅 저널의 한 경제학자가 쓴 글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비를 삶의 방식으로, 패턴으로 생각하게 만드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소비가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반복적인 메시지로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한 책에서 소비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어떤 물건을 못 쓰게 되었는데 다 닳아서 못 쓰게 된 것이 아니라, 계획 단계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못 쓰게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들 때부터 얼마동안만 쓸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이 고장 나면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바꿔야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고장이 나서 새로운 것으로 바꾸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소비주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로 하여금 '아, 이거 못 쓰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잘 입고 있는 옷인데 별로 세련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신발이 멀쩡한데도 유행에 뒤쳐졌다 하며 내버리고 새로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것, 새로운 것을 계속 주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델의 핸드폰이 나오면 상점 앞에 줄을 서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사실 그들 중에 핸드폰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멀쩡하게 잘 작동하는 핸드폰이 있음에도 신상품을 산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업광고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진 물건보다 더 새로운 것이 당신에게 어울린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북미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3천 번 정도 광고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광고를 통해 새로운 것을 사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그것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가 그것을 사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유혹하거든요.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가진 것에 불만족하도록 만듭니다. 새로운 것, 더 빠른 것을 사도록 만들지요. 불만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어 새로운 것을 사면 만족될 것처럼 그리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소비주의 사회, 바로보기

로마서 1장 18-32절 말씀에서 출발합시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의 우상숭배 문화와 인간의 죄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비판합니다. 삶 속에 다른 여러 가지를 두고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버려두셨다(God gave them over), 내버려두셨다, 내버려두셨다."라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려 하고, 섬기려 하고, 즐기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소비주의, 소비, 소비자주의(consumerism)를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종교개혁 전통에서 어떤 말에 'ism'을 붙이면, 일종의 우상숭배를 일컫는 말이 됩니다. 소비자(consumer)에 'ism'을 붙인 소비자주의(consumerism)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창조세계 내에서 선한 것인 'consumer'가 우상숭배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소비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소모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우리가 즐기고 사용하는 것은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전 여행을 다녀올 때 가끔 아이들의 선물을 사옵니다. 선물을 받는 아이들이 "감사해요, 아빠." 대신 "에이, 그거 괜히 사왔어요." 하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실 겁니다. 문제는 이 소비자주의(consumerism)가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소비지향적인 우상숭배의 요소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비는 상품만이 아니라 경험도 포함합니다. 기성세대는 상품 소비에 익숙하지만, 젊을수록 여행이나 레저 등 경험 소비에 익숙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소비가 되는 것, 그래서 인간이 소비하기 위한 존재가 되는 것, 문화의 중심에 경제적인 패러다임이나 소비 중심의 세계관이 들어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선함을 즐기는 방법을 배워 봅시다. '거룩한 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 주심을 감사하고 둘째,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학자인 톰(Tom Beaudoin)은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반소비적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의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책임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우리가 구매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자원이 부족할 때를 생각하고, 즐기면서도 주변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갖으며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소비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적어도 네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소비주의는 일종의 세계관입니다. 제인 콜리어(Jane Collier)는 "경제주의의 문화는 삶 전체를 망라하고 행복과 성취를 가져올 수 있다는 허상을 가진 유사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우상이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미 소비주의 안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소비주의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고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도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느라, 혹은 기타 비용의 발생으로 시간과 물질이 점점 부족해지고 염려도 더 커집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심리학적인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우리 몸에도 해를 끼칩니다.

특별히 가톨릭에서는 이 소비주의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소비주의 자체를 불경건한 성품에서 말미암았으며, 소비주의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이 더 탐욕적이 되고, 질투하고, 이기적이고, 중요한 것은 시시하게 여기고, 피상적이 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들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소비주의 자체가 경건한 성품을 파괴한다고 말이죠. 소비주의 세계관은 얼마나 강력한지 교회조차도 길들입니다. 존 카바노프(John Kavanaugh)는『소비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원제 : Following Christ in a Consumer Society)에서 소비주의 사회는 사람들을 형성시키는 일종의 시스템인데, 그것은 먼저 우리를 형성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을 형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카바노프는 특별히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국가나 문화의 복음에 더 헌신하여 기독교 신앙을 빈약하게 하고 길들이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포스트모더니즘, 세계화, 소비의 복음보다 못하겠습니까? 복음에 기초한 인간의 삶의 의미를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강력한 세계관 이야기로 바꿔야 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과 복음을 알고 우리 시대를 읽어내는 안목을 갖춰 문화 속 충돌과 긴장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다가 당하는 고통을 기쁘게 감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한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공동체적 삶을 통해 이 사회의 세계관에서 사람들을 깨울 수 있도록 돕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 이 강력한 세계에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즉흥적인 만족만을 구하는 세상에서 인내심과 책임감을 갖고 절제하는 공동체, 폭력적이고 거칠어져만 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을 지닌 공동체, 만족할 줄 모르는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아는 공동체,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 실현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책임성과 상호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지극히 이기적인 사회에서 이타적으로 남들을 섬길 줄 아는 공동체, 껍데기만 화려하게 꾸미는 세상에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시하고 그런 성품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 많은 것을 나누고도 충성된 청지기로 사는 공동체, 온통 경제적 혹은 생태학적 부정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정의를 사모하고 지향하며 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이클 고힌(MICHAEL W. GOHEEN)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 있는 트리니티웨스턴 대학교의 종교학부 교수로 세계관과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고, 뉴웨스트민스터 개혁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섬기고 있다. 알버트 월터스와 함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중요한 안내서로 평가받는 「창조 타락 구속」을, 크레이그 바르톨로뮤와 함께 「성경은 드라마다」(이상 IVP)를 저술했다.

※ 마이클 고힌의 강의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VIEW** http://www.view.edu/

이재철 목사의 로마서

이재철 지음/396면

★출간 예정★

2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_로마서 8~12장

3 내가 자랑하는 것
_로마서 12~16장

다시 믿음으로 다시 로마서로

1

로마서 1~7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홍성사.

WORLDVIEW SPECIAL

What Time Is It?

우리 시대의 세계관 이해하기

세계관, 포스트모더니즘, 다원주의, 상대주의
나와는 상관없다?

극단적이지만 쉽게 말해,
종교를 일개 뜨개질 정도의 취미생활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이 현 시대에 주시는 복음(Good news)은
결코 나는 쿨하다(Cool news)가 아닙니다.
결코 나는 만족한다(Well news)도 아닙니다.

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구경꾼에서 벗어나 봅시다.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기독교 학문**

오늘 제가 다루어야 할 주제는 그리 가볍지 않은 주제입니다. 기독교 학문이 무엇인지, 그런 학문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실제로 기독교 학문을 할 것인지,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자라면 당연히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제목 속에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학문의 정체성과 방법이 무엇이며 기독교 학문과 비기독교 학문의 공통성과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일관되게 학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다원주의와 관련한 논의도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원주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과 학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관계가 있다면 특별히 기독교 학문과 관련해서 다원주의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이런 물음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제목,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기독교 학문"은 우리가 이미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전제를 이미 수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연에서 만일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다원주의는 기독교 학문에 기회이면서 동시에 도전이라는 주장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다원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학문을 할 때 지향할 가치, 가슴에 품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 기독교 신학과 철학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몇 가지 기본적인 독서물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산다는 것

먼저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같이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음에 앞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다양한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각 고유한 영역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일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활동하는 삶의 영역은 여러 가지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경제 영역, 정치 영역, 법의 영역, 학문의 영역, 교육의 영역, 예술의 영역, 스포츠의 영역, 종교의 영역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구별된 활동과 행위들로 구성됩니다. 경제는 정치와 법과 학문과 교육과 스포츠와 종교와 구별됩니다. 정치나 법도 다른 영역과는 구별되는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은 고유한 영역이며,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을 빌리자면 '고유한 영역 안에서의 주권'(de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각 영역은 다른 고유 영역들이 지닌 활동과 행위를 공유합니다. 예컨대 정치 영역은 법과 학문과 교육 등의 영역과 구별되지만 그 안에 또한 거래와 규칙과 지식, 배움과 가르침, 표현의 아름다움과 게임의 요소, 심지어는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스러운 의례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종교에도 마찬가지로 거래와 규칙과 지식과 배움, 아름다움, 일종의 게임의 요소 등이 들어 있습니다. 학문의 영역은 지식 추구를 활동의 핵으로 삼고 있지만 이 활동에도 상호 교환과 규칙, 배움과 가르침, 표현의 아름다움과 게임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삶의 각 영역은 다른 영역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함을 지니지만 다른 영역의 고유한 활동과 특성이 다른 영역의 활동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영역은 다양하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큰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은 영역의 다양함뿐만 아

강영안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 대구 계명대, 미국 칼빈대학, 서강대에서 30 년간 가르쳤고 최근에 서강대 명예교수가 되었다. 인문학대중화위원회 위원장, 고신대학교 이사장을 맡아 섬기고 있다. 지은 책 가운데는 『묻고 답하다』(홍성사) 『철학은 어디에 있는가』(한길사)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등이 있다.

니라 활동의 다양함(diversity)과 그것들의 상호연관(coherence),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합된 모습(unity)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다양한 것들이 주어진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우선 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체의 다양성이나 종의 다양성을 다원성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개체와 다양한 종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의 동일한 법칙과 질서, 하나의 동일한 규칙성을 보인다고 본다면 우주는 하나의 체계, 하나의 원리에 의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에 관해 '우주론적 일원주의'(cosmological monism)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하나의 우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법칙과 다른 질서와 규칙에 따라 존재하는 다른 우주 체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우주론적 다원주의'(cosmological pluralism)가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우주가 가능하다면 그 안에 존재하는 개체의 존재 방식과 운동 방식이 서로 다르고, 따라서 동일한 잣대로 여러 우주를 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나 학문, 세계관에도 이 생각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단일 우주가 아니라 다중 우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단일 사회가 아니라 다중 사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현재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인간 사회는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 (만일 폴 틸리히(Paul Tillich)의 논제를 따른다면) 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종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고, 규제되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저는 '그렇다'고 긍정적으로도 답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통, 근대, 탈근대의 도식을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 시기가 공존하는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치나 경제, 교육, 학문의 영역에서 우리는 서양 근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서양 근대 교육과 학문을 수용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사회는 근대적 방식으로 그동안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시에 전통과

탈근대의 영향이 전혀 없지 않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관이 지배하기보다는 문제에 따라, 사안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수의 세계관이 서로 혼합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한 다원주의 사회가 아니라 해도 다양한 세계관이 서로 복잡하게 교차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원적 상황을 좀 분명하게 그려볼 수 있는 영역이 역시 종교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는 하나의 종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 기독교, 유교 등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무엇인지 정의하기란 쉽지 않지만 어떤 종교나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경전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예배나 의식이 있고, 예배나 의식이 수행되는 공간이 있고, 의식을 집전하거나 전문적으로 종교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컨대 불교에는 수많은 불경이 존재하고 '승가'라 부르는 공동체가 있고 예불이 있고 법당이 있고 승려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예배가 있고, 예배당(교회당)이 있고, 목사가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에도 성경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있고, 성당이 있고, 신부와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유교의 경우에도 예컨대 사서삼경이나 사서오경이 있고, 가정이 있고, 제사가 있고, 제사를 지내는 집이 있고,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이 있습니다. 유교는 같은 성을 공유하는 문중과 개별 가정이 중심이 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교들은 인간들의 생각, 행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으나 세계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며, 신관이 서로 다릅니다. 현실 가운데는 하나의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가 공존한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종교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다섯 가지 특성을 공유하는 제도 종교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속주의, 스포츠, 게임, 유명 인사 숭배 등도 종교적인 특성을 드러냅니다. 이들이 각각 다른 양상으로 종교의 일부 또는 전체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방향을 지시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종교는 제도 종교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삶이 세속화되는 상황에서 제도 종교보다는 비제도적, 비형식적 유사 종교나 대용 종교가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초점을 조금 좁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계는 다원적인 특성을 드러내는가? 아마 각자가 속한 학문 공동체에 따라 다르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 철학계의 경우 미국 철학계와 달리 철학적 방법이나 철학하는 방식이 훨씬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전통의 철학 방식을 따르고 연구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철학자들도 역사적 방법을 따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철학에 한정해서 보자면 현상학 전통에서 철학하는 사람들은 「하이데거와 레비나스의 존재 이해」, 「레비나스 철학에서 향유와 거주」와 같이 한 철학자의 문제가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논문을 쓰는 방식입니다. 분석철학자들의 경우에도 이런 방식은 예외가 아닙니다. 「전기 비트겐슈타인, 논리, 형이상학」, 「인간 향상과 인간 본성, 그리고 인간 존엄성 –후쿠야마의 논증 비판」 이런 제목을 단 논문들이 분석철학계에서 나옵니다. 해석학계에서는 예컨대 「가마다에서 적용의 문제」, 「폴 리꾀르의 작품 『기억, 역사, 망각』을 통해서 본 '용서'」 등의 논문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역사적 해석을 하거나 (특히 분석철학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제 중심의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는 관심에 따라 정치철학이나 문화철학, 법철학, 윤리학이나 종교철학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다같이 '철학'이라는 공통 분야에 통용되는 규칙에 따라 활동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학문 영역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다루는 지역이나 시대, 다루는 인물이나 텍스트,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통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원적 상황은 기회이며 도전

철학계만 보더라도 지금은 어떤 한 방법이나 학파, 어떤 한 조류가 전체를 지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상학회, 분석철학회, 해석학회, 사회와 철학회, 칸트학회, 하이데거학회, 그리고 기독교철학회와 같이 크고 작은 학회들이 공존하는 상황이 오늘 우리 학계의 모습입니다. 분석철학회의 경우, 예컨대 알 플랜팅가나 밥 애담스, 필립 퀸 등 미국에서 유신론 철학자로 알려진 분들의 사상을 다룬 논문들이 학회지에 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철학은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과는 무관한 분야로 이해되었습니다. 불교철학이나 유교철학, 또는 노장철학은 당당히 철학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와는 달리 기독교 신앙과 철학은 무관한 것으로 이해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철저한 유물론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무신론을 전제해야 학문적 철학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우리 학계를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컨대 박종홍 선생이나 김태길 선생같이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조차 철학자로 활동하던 시기에는 세례를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경우만 해도 철학은 이성으로만 하는 것이고 신앙은 철학과는 무관하거나 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철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 변화가 철학의 경우, 예컨대 자크 데리다나 폴 파이어아벤트, 리처드 로티와 같은 철학자들이 방법론적인 일원론을 배격하고 일종의 방법론적 다원론 또는 방법론적 아나키즘을 주장한 탓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이전에 일어난 역사주의와 상대주의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오늘 우리 학계의 현실은 하나의 세계관이나 하나의 방법론이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세기 초중반 논리실증주의가 한창 유행할 때나 현상학이 강력한 철학 운동으로 전개될 때, 그리고 훨씬 이전인 근대철학 초기에 예컨대 데카르트의 철학이 유럽 대륙에서 설득력을 얻을 당시에 비해 보면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편견, 이념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하는 연구가 맑스주의를 토대로 하는 연구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하는 연구와 마찬가지로 국가 지원의 연구 과제로 채택될 수 있고, 실제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다원적 상황은 (만일 우리의 상황을 다원적 상황이라 부를 수 있다면) 기독교적으로 학문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리하다기보다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서양의 경우, 논리 실증주의가 한창 유행할 때만 해도, 기독교적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학계에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분위기가 없지는 않으나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과 일관되게, 신앙을 바탕으로 학문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새롭게 전개된 상황은 드러내 놓고 자신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다원주의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예컨대 유물론과 자연주의 관점을 가지고 학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지만 기독교적으로 학문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다원주의는 단순히 서술적(descriptive) 의미의 다원주의라기보다 규범적이고 처방적인(prescriptive) 의미의 다원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관점주의(perspectivalism)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물을 전체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 어떤 지점에 그것이 놓여 있는 지평을 배경으로 한 부분, 한 측면만을 보고 있습니다. 지각 경험이 지닌 이러한 관점의 불가피성을 확장하면 우리가 참이라고 수용하는 판단이나 가치, 생각이나 이념, 세계관도 이러한 관점의 한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이나 세계관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고, 다양한 세계관 사이에는 '같은 잣대로 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incommensurable)라고

한다면 '관점주의' 또는 '관점적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가 '참'이라 믿고 수용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지점, 내가 속한 문화, 내가 어떤 시점에 우연하게 소유한 세계관에 한정될 것이고, 만일 이것이 옳다면 실제로 참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은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곧 나와 또는 우리와 관련해서 참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종교 다원주의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 종교가 있다는 의미에서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가 참인가?", "어느 종교를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어느 종교에 구원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는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슬람에만 구원이 있다고 답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일컬어 학자들은 '배제주의' 또는 '배타주의'(exclusivism)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학문 방법론에서 오직 경험만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오직 이성만이 신뢰할 수 있다거나 하는 입장과 유사합니다. 이와는 달리 어떤 종교에도 참이 있고,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학자들은 '종교 다원주의'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때의 다원주의는 더 이상 서술적 의미의 다원주의가 아니라 규범적, 처방적 의미의 다원주의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주어진 현실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바람직한 현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학계에서 일어난다고 봅시다. 경제계에서는 재화를 서로 주고받지만 학문의 세계는 지식이 유통되는 세계입니다. 지식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참이어야 합니다. '진리'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참된 것'이어야 지식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학문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과 힘을 쏟으며 하는 활동이 만일 '참된 것'을 발견하고 찾고 '참된 것'을 드러내는 일과 무관하다면 (그렇게 하는 일을 통해 결과를 내고 명성을 얻고,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다 해도) 우리의 활동은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참된 것입니까? 예컨대 지금 여기 있는 탁자를 보고 "이것은 탁자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참은 내가 한 말이 '맞다'입니다. 그런데 "이 탁자는 네모났습니다."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은 선뜻 "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라는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앉은 자리에 따라서 이 탁자가 네모난 것인지, 둥근 것인지 쉽게 지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답을 꼭 해야 할 상황이라면 직접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한 뒤에, "네, 그 말이 맞습니다." 또는 "틀렸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맞다'는 말은 곧 '참'이라는 말이고 '틀렸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경험적인 것들은 이런 방식으로 진술되고 그 진술의 맞음과 틀림, 참과 거짓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5 더하기 7은 12"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맞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맞다'는 말은 '참'이라는 말입니다.

다원주의는 더 이상 서술적 의미의 다원주의가 아니라 규범적, 처방적 의미의 다원주의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주어진 현실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바람직한 현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문에서 논의되는 진술이나 이론, 주장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이나 "신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계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원리는 물질이다", "물질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자연뿐이다", "존재하는 것은 자연이상이다." 등의 주장은 쉽게 '맞다',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에서 자유의지론과 결정론이 대립되고 유신론과 무신론이 대립되고 유물론과 비유물론이 대립되고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가 대립됩니다. 지금 얘기한 형이상학적인 물음과 관련된 것들뿐만 아니라 사회체제나 경제체제, 정치체제와 관련된 큰 주장들이 서로 대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참과 거짓은 경험을 통해서 또는/그리고 논리를 통해서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일관된(정합적인) 논변, 좀 더 단순한 논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논변과 그렇지 않은 논변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리처드 스윈번이 『신은 존재하는가 Is there a God』라는 책에서 시도한 것처럼 유물론(materialism)을 수용하는 것보다 유신론(theism)을 수용하는 것이 훨씬 단순하고, 훨씬 단순하다는 것이 진리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참됨을 보여주기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저는 학문하는 사람들이 참된 것을 추구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의 결과 얻은 것들이 유익할 수 있고, 좋은 것일 수 있고,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참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된 것이 유익하고 큰 결과를 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에 거짓은 쇠퇴하고 시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원주의자이면서도 예컨대 '궁극적인 실재'를 설정하는 일원론적 종교 다원주의자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학문하는 사람은 '참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학문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참된 것'을 포퍼처럼 '진리에 가까이 다가감'(verisimilitude)으로 보고, '진리'란 개념을 칸트적 의미의 '규제적 이념'으로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삼위하나님을 믿는 학자라면 진리에 대한 실재론을 수용하고 실재적인 '참된 것'의 발견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학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원적 상황에서 기독학자가 추구할 가치

다원적 상황에서 기독학자는 마땅히 '참된 것'을 발견하고 드러내고자 애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된 것'은 여러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경험적인 진술의 경우, '참된 것'은 앞에서 든 예를 통해 보았듯이 우리가 '맞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식의 단계에 따라 '참된 것'은 의미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참말이니 빈말이니 거짓말이니 하는 말을 합니다. 무엇이 참말입니까? 참말은 빈말이 아니라 찬 말입니다. 내용이 채워져 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포도가 비어 있지 않고 제대로 꽉 차있는 열매(眞實)일 때 우리가 참 포도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빈말은 든 것이 없으니 비어 있습니다. 어떤 결과도 산출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마침내는 거짓으로 드러나고 맙니다. 차 있는 말은 믿음을 얻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 참된 것입니다. 만일 믿을 만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떤 이론이나 주장, 어떤 설명도 학문의 시장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유통되거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언제나 참되고, 옳고, 신뢰할 만한 것을 찾아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미 가진 생각을 보강하고 정당화하고 훨씬 설득력 있게 타인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저런 결함이 있다고 해도 그런 이론이나 주장이나 사상을 참된 것으로 내세우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은 어떻게 학문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수많은 자기주장과 이론을 펼치는 학문의 시장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무엇이 참된가, 어떻게 참된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무엇이 진실이며 사실인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자신이 투신한 학문에 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학자가 취할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탐색하는 현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며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의지와 신뢰는 우리가 참된 것을 추구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것은 어느 하나 빠짐없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시는 일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진리'라는 명사를 붙일 수 있는 분은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그 진리로부터 파생된 것들로 우리가 부사적으로나 형용사적으로 '참되다'거나 '참된 것'이라고 부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참된 것을 추구하고 드러내고 변호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독학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로움에 대한 추구입니다. 이때 말하는 정의로움은 희랍어로 디카이오수네(dikaiosune)입니다. 의로운 것, 바른 것, 옳은 것에 대한 추구라 하겠습니다. 참된 것 못지않게,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자주, 더 강하게 성경은 정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정의로움,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며, 그를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말하는 정의, 정의로움, 의로움은 불의와 반대됩니다. 불의는 사람에게 가하는 악이고 억울함을 가져오는 행동입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억울함과 불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학문 안에서, 지적인 추구 안에서 발생하는 억울함과 불의를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적 추구에는 마치 재판 상황이나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판단의 과정과 타인과 관계하는 방식이 개입됩니다. 논문을 읽고 주장을 이해하고 반박하더라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정당하게 타인을 대하고 주장을 판단해야 할 과제가 학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만일 반대 주장을 하거나 비판하더라도 타인의 주장과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요약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상대적 관점을 취하고 어떤 것이나 해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자크 데리다조차도 이 정의의 이념, 공의의 이념은 해체될 수 없다고 본 것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무너지면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말조차도 의미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함입니다. 굳이 희랍어로 하자면 아가토수네(agathosune)입니다. 무엇이 선함입니까? 선함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물의 속성이라기보다는 행위의 의도와 결과에 대한 서술입니다. 예컨대 강도 만난 이웃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며 다가가 상처를 싸매주고 도와준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를 때의 선함입니다. 고통 받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에 개입하여 그 고통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선한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 학자에게도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학문의 동기와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든 선한 행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을 보고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는 보고 들을 수 없습니다. 라틴어 표현에 "Ubi amor, ibi oculus"란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그곳에 눈이 있다." 이때 사랑은 고통을 두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눈앞에 주어진 고통에 대해서는 곧장 행동으로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묻고, 따지고, 연구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론적 탐구는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으나 결국에는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과 연관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세 가지 가치는 에베소서에 따르면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agathosune)과 의로움(dikaiosune)과 진실함(aletheia)에 있느니라."(엡 5:8-9) 그리스도인 학자가 기독교 신앙과 일관되게 학문하려 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동일한 삶의 방식이 학문하는 활동에도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 삶의 길에 몸과 마음이 젖어들고 익숙해 지려면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일로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옛 자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새로워진 자아의 지배를 받아 학문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제안

하나의 방법이나 이론, 하나의 세계관이 주도하지 않고 여러 방법, 여러 이론, 여러 세계관이 허용되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은 그리스도인 학자들에게는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세계관과 이론이나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한 통찰과 이해가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것의 추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며 언제나 공의로움을 생각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며 학문 행위에서조차도 선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저는 기독교 철학과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수련이 기독학자에게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agathosune)과 의로움(dikaiosune)과 진실함(aletheia)에 있느니라."(엡5:8-9) 그리스도인 학자가 기독교 신앙과 일관되게 학문하려 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동일한 삶의 방식이 학문하는 활동에도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기독학자가 기독교적 학문의 동기와 충동을 자극받는 데는 예컨대 월터스토프의 저작이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는 우리의 학문적 활동이 정의와 평화를 향해 걸어가는 삶과 얼마나 밀접한지를 〈Until Peace and Justice embrace〉(Eerdmans, Grand Rapids, MI, 1983)(『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홍병룡 옮김, IVP))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컨대 그의 저서 〈Justice: Rights and Wrongs〉(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Oxford, 2008), 〈Justice in Love〉(Eerdmans, Grand Rapids, MI, 2011)(『사랑과 정의』(IVP 출간예정)) 등에서 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의 최근작 『약자 중심의 윤리: 정의를 위한 한 이론적 호소』(세창출판사, 2015)도 고통과 정의 문제에 관심을 두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식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식론과 관련된 전문서보다는 오히려 레슬리 뉴비긴의 〈Proper Confidence〉(Eerdmans, 1995) (『타당한 확신』(박삼종 옮김, SFC출판사, 2013)을 먼저 읽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조금 나아간 논의이기는 하나 입문 수준의 책인 에스터 라이트캡 미크의 〈Longing to Know. The Philosophy of Knowledge for Ordinary People〉(Brazos Press, Grand Rapids, Michigan, 2003)과 좀 더 전문적이고 신학과 철학이 함께 섞여 있는 〈Loving to Know. Covenant Epistemology〉(Cascade Books, Eugene, Oregon, 2011)를 읽을 것을 권합니다. 뉴비긴과 미크의 배경에는 결국 마이클 폴라니의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개인적 지식』 표재명, 김봉미 옮김, 2001)가 있습니다. 이 책을 언젠가는 숙독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과 현실, 그리고 좀 더 폭넓은 기독교적 존재론의 이해를 위해서는 도이여베이르트의 저작들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The Twilight of Western Thought〉(Paideia Press, 2012) (『서양 사상의 황혼에서』, 신국원, 김기찬 옮김,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6)와 〈Roots of Western Culture〉 (Paideia Press, 2012)(『서양문화의 뿌리』, 문석호 옮김, 생명의 말씀사, 1996)는 좋은 입문서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도이여베이르트 사상의 신학적 배경이 되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Lectures on Calvinism〉(Eerdmans, 1970) (『칼빈주의 강연』 김기찬 옮김,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6)도 함께 권합니다.

아직도 우리와 같은 기독학자들은 학계에서 지극히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는 학문을 깊이 사랑하고 추구한다면, 그리고 어떤 분야의 지식이라도 그 자체로 알고 즐거워할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열심을 다한다면 진화론적 세계관이나 유물론적 세계관,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학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이 가운데는 대립(antithesis)이 있고 충돌이 있고 궁극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거리와 간격이 있다고 해도 이 세계는 인격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지은 세계이며, 인간은 그의 모습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니, 애초부터, 공통의 지반(common basis)을 공유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학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칼럼은 2015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다원주의 사회와 기독교 학문"** 기조강연 전문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와의 **선교적 대면**

21세기 글로벌 다원주의 상황은 기독교에 생소한 도전이 아닐 수 있다. 초대교회 이래 수많은 문화와 시대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비슷한 상황을 무수히 겪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세계관이 뒤섞여 충돌하는 지금이야 말로 그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혜가 빛을 발할 때이다.

글로벌 다원주의 문화와 기독교

지난 세기 후반에 본격화된 글로벌 다원주의 문화 밑에는 오랜 역사적 상황이 깔려있다. 물론 직접적 원인은 근대 계몽주의의 실패다. 16세기 종교개혁 후 유럽에선 신구교파들이 백년넘게 무력으로 충돌하는 전례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계몽사상은 중립적이라 믿었던 이성을 삶의 공통적 토대로 삼아 평화를 담보하려던 야심찬 기획이었다. 하지만 이성 역시 신앙 못지 않게 독단적일 뿐 아니라 모든 특수성과 다양성에 대해 억압적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원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이 세력을 확장하는 빌미가 되었다.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리적 경계가 무너지면서 한 사회 안에 여러 문화와 관습이 뒤섞이는 일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른바 문화혼종현상은 선진국의 대도시뿐 아니라 오지의 원시부족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이로 인해 세계 어디서나 전통적 사회문화의 구심력이 약화되면서 다원주의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되는 분위기이다.

이처럼 다원주의가 팽창하는 이면에 세계를 단일시장으로 만드려는 자본주의가 새로운 글로벌 이데올로기로 부상한 것은 역설적이다. 이 세계화의 근본동인은 경제이다. 지역 문화 중 돈이 될 만한 것은 가차 없이 글로벌 문화상품으로 바뀌고 있다. 다양성이 본질이며 생명인 문화마저 획일화되는 중이다. 세계는 지금 자본주의 경제와 대중문화산업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압박과 이에 맞서 정체성을 지키려는 다양한 집단들의 저항 사이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한편 기독교 공동체는 지난 2천년간 전세계 다양한 문화 속에 복음 증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왔다. 교회의 출발점에 일어난 오순절 사건은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방언은 모든 언어를 하나의 통일된 언어로 바꾸는 기적이 아니었다. 십자가 구원의 진리가 다양한 언어와 문화 적응을 통해 만방에 소통될 일에 대한 예고였다. 초대교회가 유대의 벽을 넘어 이방 그리스-로마 문화를 거쳐 열방으로 나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현재 기독교는 "2천개가 넘는 다양한 언어집단"의 신앙이다. 기독교가 품은 역사적, 문화적 다양성은 실로 엄청나다. 기독교 신앙이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넘어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옷을 입을 수 있음은 역사적으로 실증되었다. 한국교회도 백여년의 짧은 역사 속에 세계교회가 거친 과정을 압축적으로 통과하며 다양한 문화적응을 겪었다. 일제의 신사참배와 공산주의 핍박, 초대 정부의 정치적 후원, 특히 경제부흥에 힘입은 선교열풍은 식민지 개척과 행보를 같이 했던 서구의 선교와 닮았다. 지금은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 소통단절, 보수성, 독단과 획일성, 도덕적 실패가 복음전파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뼈아프게 경험하는 중이다.

이 경험은 교회가 특정 이념이나 정치경제 프로젝트에 편승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반면에 다양한 공동체가 공적광장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가 많아진 지금 고립의 위험이 무엇인지도 알게한다. 결국 현 상황 속에서 관건은 다원주의 시대정신에 함몰되지 않으면서도 확신을 독단적이지 않은 태도로 설득력있게 공적 영역에 제시할 능력이 있느냐이다.

다원주의 담론의 한계

다원주의 사회에선 특정 이해집단의 권익을 도모하는 "정체성 정치"가 난무한다. 인권이 사람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여성, 흑인, 동성애자 같은 특수 이해집단의 정치적 권익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기되는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려는 것이 오늘날 사회연구의 핵심과제이다. 거기에는 이성적 통일성의 회복을 꾀하는 신계몽주의로부터 오히려 그 분산과 긴장을 고취하려는 포스트모니즘에 이르는 다양한 제안들이 망라되어 있다.

물론 핵심 관심사는 차이를 넘어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공적영역만큼은 중립지대로 만들어 구성원 모두에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방안을 제시하려 애쓴다. 주류 담론들에는 대체로 진리는 고정불변의 실재가 아니고 삶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실용주의가 깔려있다. 종교뿐 아니라 철학도 개별 신앙이나 이론을 객관적 진리인 양 설파하거나 입증하려는 노력 대신에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방안 모색에 협력해야만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연히 독단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모든 종교나 형이상학이 공적담론에서 배제돼야 할 것이라는데 일치한다.

종교는 물론이고 특정 형이상학과 윤리에 기초한 깊고 "두터운" 이론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선에 대한 옅은"의식의 증진을 통해 민주사회의 존속을 담보하려는 정의론을 주장한존 롤즈가 좋은 예이다. 시민사회를 "옅은 도덕"의 "순한 상대주의"에 기초한 학문과 예술의 세련된 "논쟁의 장소"로 만들 것을 주장하는 로버트 우스노우도 같은 생각이다. 마이클 노박은 한 사회의 중심인 성소는 비워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그곳이 경외심을 품은 자유로운 양심을 통해 접근해야 할 초월의 장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공적 광장은 벌거벗은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리차드 노이하우스는 이를 보다 세속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공적광장이 이들의 주장처럼 결코 빈 공간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데 있다. 빈 공공의 성소는 "채워지기를 간청"하는 불안정한 과도기일 뿐이다. 그 진공은 흔히 공적 삶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인 국가나 기업과 미디어에 의해 채워지기 일쑤다. 이럴 경우 벌거벗은 광장은 이들의 독무대가 되고 만다. 다원주의가 자칫 "새로운 전체주의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로 "배타주의적 종교의 악령"을 내쫓아 깨끗이 청소된 광장은 처음보다 더한 일곱 귀신을 불러들인다. 롤즈의 정의론은 무지의 베일에 쌓인 익명의 무인종, 탈-역사, 탈-성별화된 추상적 존재를 이상적 시민으로 그려내는 환타지이다. 현실의 공적 광장은 결코 비어 있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그곳은 언제부터인가 인종, 계급, 성적 취향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개인과 집단들의 문화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다수결을 토대로 하는 민주사회가 흔히 소수에 대해 관용적이지 않기에 다원주의는 매력적으로 비친다. 하지만 상대주의적 다원주의 이념 아래 다양한 집단의 공존은 다원주의를 위한 다원주의요, "모자이크의 광기" 또는 "비전 없는 공존"일 뿐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다양성의 과도한 배양은 심한 불관용"으로 떨어지곤 한다. 다원주의도 사실은 하나의 독단적 도그마다. 이점은 유독 기독교에 대해 배타적인 세속화 사회의 태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며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자 월드뷰 편집위원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샬롬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 (이상 IVP) 등이 있다.

교회내에 침투한 다원주의와 치유방안

다원주의는 교회에도 침투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첫째, 다원주의는 전통적 선교를 원칙상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극도로 약화시킨다. 기독교 진리에 반하는 사상이나 삶의 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 태도를 취하게 만들기도 한다. 모든 종교가 같은 신과 구원에 이르는 다른 방식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는 말할 것도 없다. 다른 종교들에도 진리가 있지만 기독교가 가장 완전하다고 하는 포괄주의도 복음의 유일성과 선교 열정을 침식하기는 마찬가지다.

둘째, 다원주의만 아니라 모든 다양성 자체가 문제인냥 무조건 배격하는 태도는 또 다른 패착을 가져온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몰이해나 배타적 태도는 소통을 방해해 결국 선교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게 만든다. 이런 모습은 자주 세상 여론으로 하여금 종교가 원인이된 분쟁들을 나열하며 왜 종교간 관용이 필수적인 덕목인지를 강변하며 압박할 빌미를 제공한다.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이런 상황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지만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할 때가 많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기회주의적으로 일관성 없이 행동함으로 스스로 신앙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예 사적으로는 신앙 진리를 계시로 믿고, 공적으로는 심미적 의견이나 잠정적 이론인듯 행동하라는 소심한 권고가 압박에서 벗어날 지혜인 양 제시되기도 한다. 이 모두가 다원주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비가 부족한데서 비롯되는 일이다.

다원주의 문화의 압박은 흔히 기독교인들을 근본주의와 자유주의로 갈라놓는다. 전자는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려는 열정이 있고 후자는 관용과 문화적응에 강한 나름의 장점이 있다. 문제는 서로 약점만을 부각시켜 다투기 시작할 때다. 이런 적전분열의 우매함은 다원주의에 대처하기는 고사하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초래할 뿐이다. 다원주의에 대한 바른 대처는 관용이 다원주의 이념에 함몰되거나 정통이 "오만과 반계몽주의"로 전락하지 않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데 있다. 보수적 교만이 정통의 위험이라면 진보의 함정은 무모한 방만함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뿌리인 칼빈주의 전통은 비교적 그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는 역사적 실례이다. 이 전통은 일반은총론이나 영역주권사상 같은 다원주의에 대처하는데 유용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종교개혁 당시부터 다른 개신교파에 비해 여러 나라에 흩어져 분포한 탓에 다문화적 적응의 경험이 풍부한 것도 유리한 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전통은 어거스틴을 따라 역사를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하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세계관의 대립과 확실히 구분하여 창조에 내재된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환원주의나 전체주의를 거부한다. 동시에 상대주의나 무정부주의를 반대하고 창조질서에 기초한 사회문화적 비전을 제시한다. 나아가 사회와 문화의 분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영역과 조직체의 다원성을 옹호했다. 이는 공과 사의 분리 같은 이원론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가정, 학교, 예술, 경제 등 삶의 다양한 영역들 사이의 분립과 주권을 보장하는 통찰이다.

이 사회문화적 비전은 근대 이성주의적 토대주의의 문제점을 꿰뚫어 비판함에 있어 포스트모더니즘보다 선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삶의 비전 즉 세계관의 다양성이 종교적 뿌리에서 비롯됨을 밝힌 것은 더 중요한 기여다. 삶의 다양한 영역들이 고유한 본질과 독립된 주권을 가질 뿐 아니라 종교적 비전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통찰은 거기서 나온다. 나아가 이에 따라 학문이 이성적 탐구라는 공통적 본질에도 불구하고 왜 유물론과 유신론적 방향으로 분열을 일으키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근래에 들어와 개혁주의 세계관 진영에서는 다원주의 문화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자연히 이 문제를 씨름하는데 도움을 줄 통찰도 많이 개발되었다. 우선 창조질서의 객관적 존재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여 다원주의 문제를 다룰 독특한 이론적–실천적 토대가 상당부분 구축되었다. 예를 들어 삶의 구조적 다양성 분석이나 비토대주의적 인식론은 삶의 다원적 성격을 바로 이해할 이론적 토대이다. 그것은 다원주의 사회 내에서 우리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나아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논의할 기초가 된다. 물론 일반은총론 같은 고전적 교리도 다른 세계관과 이념을 가진 이들과의 건설적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열린 태도를 갖출 신학적-철학적 기반이 된다.

선교적 대면의 교훈

개혁주의 사회문화적 비전은 선교적 관점으로 강화될 때 다원주의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선교적 관점이란 창조로부터 완성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종말론적 시야에서 바라보는 보편사적 시각이다. 거기엔 우리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비전을 따라 나가고 있다는 역사의식이 함축되어 있다. 이는 기독교인들도 지금은 다른 세계관들과의 경쟁 속에 종말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이 관점에는 또한 우리는 증인일 뿐 판관이 아니라는 인식이 들어있다. 복음과 역사에 대한 이해와 증언도 개인적이며 실존적인 한계가 있음도 인정한다. 증인의 의무는 주어진 상황속에서 받은 메시지를 이해하여 신실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보편성을 확고히 주장하지만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통해서 강요하려 하지 않았던 사실을 중시한다. 사실 그럴 상황도 아니고 힘도 없었다. 성육신의 정신을 따라 낮은 섬김의 자세를 견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제국을 정복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선교적 관점은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가 보여준 이 분명한 모범을 망각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다. 반-기독교적 정서가 높아져가는 현실 앞에 승리주의 환상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닐까 반성케 한다. 패배주의로 위축될 필요가 없음도 알게 한다. 다원주의의 도전 앞에 방어적인 태도로 뒷걸음질 쳐서는 안될 이유도 가르쳐준다. 왜 사회문화적 책임을 버리고 개인적 영성에 몰입하는 퇴행을 택하는 일은 하면 안되는지도 알려준다. 교회는 지난 이천년간 다원주의 상황에 주저 없이 들어가 정면돌파를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 소수지만 탁월한 통찰과 자신감을 갖췄던 대안 공동체의 선교적 비전을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회복해야 한다.

한국의 문화적 토양은 샤머니즘에서 진보까지 수천년간 누적된 종교다원주의 역사이다. 이제는 글로벌 다민족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나가는 중이다. 서구교회가 스스로를 "사회적 소수"로 의식한다면 한국교회는 더욱 그렇다. 오랜 기독교전통의 유산은 고사하고 이성주의 전통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화 이래 사회문화적 헤게모니는 진보쪽에 쏠려있다. 다양한 문화와 상황 속에 축적된 역사적 기독교의 자산과 지혜를 배워야 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다양한 세계관이 난무하는 상황일수록 기독교 학문의 사명이 중요하다. 기독교 학문은 신학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구원의 진리가 세상문화 속으로 깊숙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에 입각한 "적절한 자신감"과 다원주의 사회에 걸맞는 "탁월한 예절"과 더불어 "지적 세련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오늘날 다원주의 분위기로 인해 신앙과 학문의 대립이 크게 완화되었고 기독교 학문의 위상도 높아졌다. 이런 의미에서 다원주의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요란한 정체성 정치의 문화전쟁이 벌어지는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다른 세계관을 지닌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지금이야말로 기독 지성인들이 전시대 개혁주의자들이 보여준 "지적 상상력과 영적 용기"를 계승해야 한다. 그들이 보여준 특별한 관용, 겸손, 개방성 같은 사회적 덕목과 시민적 교양도 더욱 두텁게 갖추어야 한다. 이 지적 도덕적 덕목이 우리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샬롬의 문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다원주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단언컨대 우리는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 창조 이후부터 인류는 다원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원성은 현상과 경험을 설명하는 적절하고 유용한 그릇이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다원성이 근래에 들어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되고 있다. 다원성이 현상과 경험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가치와 윤리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하나의 신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늘의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다.

최근 한국 교회는 다원주의 시대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위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입법 활동 과정 중에서 드러난 동성애 관련 문제가 그것이다.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은 모든 국민이 여하한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법 취지를 가진 법안이다. 개인의 '성적 지향'과 관련하여 어떠한 윤리적 판단이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대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동성애 문제를 개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윤리의 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일었다. 다원주의는 당연히 전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를 규범적인 윤리의 문제로 보려는 기독교계의 시각은 편협하고 독선적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만 했다.

다원주의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강하게 일었다. 소위 종교다원주의 논쟁이 그것이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든 길이 결국 하나의 종착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초월적 절대자인 신은 많은 이름을 가졌으나 결국은 동일한 실체에 대한 다양한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종교진화론의 견지에서 본다면 어차피 신앙은 진화의 과정 중 획득된 인간 경험의 투사에 불과한 것으로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모든 종교는 나름의 진리 주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각자의 신앙 체계의 내적인 차원에서 독특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종교와 전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종교의 진리주장을 타종교인에게 강요하며 개종을 유도하는 것은 다양한 종교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해치는 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으로 한국 교회들의 선교는 독선적이며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를 통해 촉발되어 동국대학교 불상 훼손 사건과 봉은사 땅밟기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비난의 강도가 높아졌다.

기독교 선교가 배타적이라는 비난과 비판은 기독교계 밖의 목소리로만 머물지 않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으면서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것이다.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외부적 경계가 타종교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2013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 10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를 기점으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논의가 한국 교회들에게도 큰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이를 계기로 다른 종교들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선교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주장이 기독교 내부에서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진리와 규범의 부재 혹은 인식 불가능성을 이유로 다원성을 절대화 하는 경향을 보인다. 어떤 면에서 다원주의가 다원성을 절대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따라서 시대적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야하는 이중언어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원주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선교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단상을 나누고자 한다.

연승철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취득(Ph. D. 선교신학 전공)하였다. 사랑의교회 대학부 디렉터, 선교한국의 조직위원으로 섬기다가, 현재는 교구담당 및 지역사회선교부 담당으로 섬기고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광장(Public Square)에 나서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광장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주관적이고 사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종교는 좁은 골방으로 밀려나야만 했다. 하지만 마땅히 광장에 설 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해왔던 대부분의 진리주장들의 규범성이 해체되었다.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독점적으로 광장을 차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원주의는 누구든 광장에 서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도록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이제 다시 우리는 겸손한 자신감으로 광장에 서서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식론적인 자기 이해의 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상대화하여 다원성을 극대화 하는 시대적 흐름에 그리스도인들이 무분별하게 휩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절대적인 자기 계시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유일한 수단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위에 세워져 있다. 계시된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와 규범성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진리는 그저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식의 참 됨을 담보하기 위해 정초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식과 신앙과 삶을 위한 유일하고 유익한 규범이다.

셋째는 다원성에 대한 인정, 배려, 존중이 필요하다.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최근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IS)이 벌이고 있는 테러행위는 그들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절대 용납 될 수 없는 일이다. 다원주의 시대에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곧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광장에서 자유롭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넷째는 성경의 이야기가 적절한 시대의 언어로 들려질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성경이고 복음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오늘의 언어로 들려주어야 한다. 복음을 동시대의 언어와 레토릭으로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도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 그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언어적인 이야기와 함께 체험을 담은 비언어적인 이야기로도 다양하게 들려져야 한다. 이야기가 가진 힘이 있다. 이야기는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초이다. 따라서 우리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니라 설득력있고 실효성있는 이야기여야한다. 다원주의 시대에 복음은 이야기가 가진 독특한 영향력을 매개로 적절하게 동시대에 선포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는 다원주의 시대는 결국 다양한 세계관들의 소리 없고,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는 것이다. 다양한 진리주장들이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말해진다. 사람들은 다양한 세계관을 담은 이야기들을 듣고, 적용해 보고, 평가한 후 자신의 이야기(세계관)로 받아들인다. 성경의 세계관을 담은 우리의 이야기를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들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들려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들은 허망한 세상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원주의 세계관이 견고한 진으로 자리잡고 있는 오늘을 구속하기 위해 성경에 토대를 둔 선교적 세계관 변혁이 필요하다.

여섯번째는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동시대 가장 주된 세계관을 선교적으로 변혁하는 과정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선교적 세계관 변혁의 가장 중요한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은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되어야 한다.

함께, 더 깊고도 넓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_엡 3:14-19

누가 그 진리를 죽였는가? (<포스트모던 시대의 진리>의 개정판)

저자 레슬리 뉴비긴 **역자** 홍병룡 | **IVP** | 정가 7,000원
원제 Truth and Authority in Modernity

진리와 권위는 폭력적이고 억압적일 수밖에 없는가?
레슬리 뉴비긴은 탄탄하면서도 번뜩이는 논리로, 현대와 탈현대사회에서 진리와 권위의 원천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근대가 이성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권위에 관한 모든 주장을 의심하고 있음을 간파한다. 그는 교회가 성경, 전통, 이성, 경험을 신적 권위에 대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이 네 가지가 각각 어떻게 신적 권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권위의 근거로서 각각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준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성경을 말하고 그 이야기의 일부분으로 제대로 살아갈 때에야 현대 사회에서 복음의 권위와 진리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저자 신국원 | **IVP** | 정가 12,000원
원제 Walking with God in the Classroom

그리스도인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지침서로 과연 이 시대의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현대적 현상을 규명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적 배경, 문화 및 포스트모던 사상에 대한 철학적 기독교적 비판을 제시하는 책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불러온 근대의 위기의식의 실체를 파헤친 뒤에 전근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포스트모더니즘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포스트모던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균형잡힌 기독교적 시각을 보여준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

저자 리차드 미들턴, 브라이언 왈시 **역자** 김기현, 신광은 | **살림** | 정가 20,000원
원제 Truth is stranger than it used to be

〈그리스도인의 비전〉의 개정판으로 미처 다루지 못한 포스트모더니티와 내러티브에 대한 내용이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다. 이 책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세계관 논의를 위한 필독서로 제1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비전〉에서 소개한 세계관에 대한 4가지 물음을 통해 포스트모던의 특징을, 제2부에서는 포스트모던과 관련이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제시하며 성서가 교회의 실천을 정당화하는 방법론을 성찰하고 있다. 두 저자는 포스트모던 시대가 기독교 세계관에 도전을 가져다 준 것은 맞지만, 그러한 도전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코끼리 이름 짓기

저자 제임스 사이어 **역자** 홍병룡 | **IVP** | 정가 12,000원
원제 Naming the Elephant: Worldview as a Concept

'기독교 세계관 라이브러리' 시리즈, 제3권 『코끼리 이름 짓기』.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과 짝을 이루는 책으로, 세계관 논의의 반성적 성찰을 위하여 그것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 세계관 개념의 역사를 고찰하여 그것을 성경적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가 품고 있는 실재관의 근본 바탕에는 우리의 인생관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코끼리가 놓여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코끼리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질 것이라고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코끼리의 이름으로 합당함을 증명한다.

새로운 대안이 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주님의십자가교회에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역위원회)

함께 동역할 부목사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국내외 정규 신학대학원 M.Div 또는 동등자격
졸업자로써 복음주의적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자

사역내용

주일학교 및 젊은이 사역, 일반 교회행정

준비서류

1)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고백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통씩
2) 설교원고 2편, 설교 동영상 또는 음원 1개
3) 추천서

지원마감

2015년 6월 15일 까지

제출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역위원회
전화 : 02) 754-8004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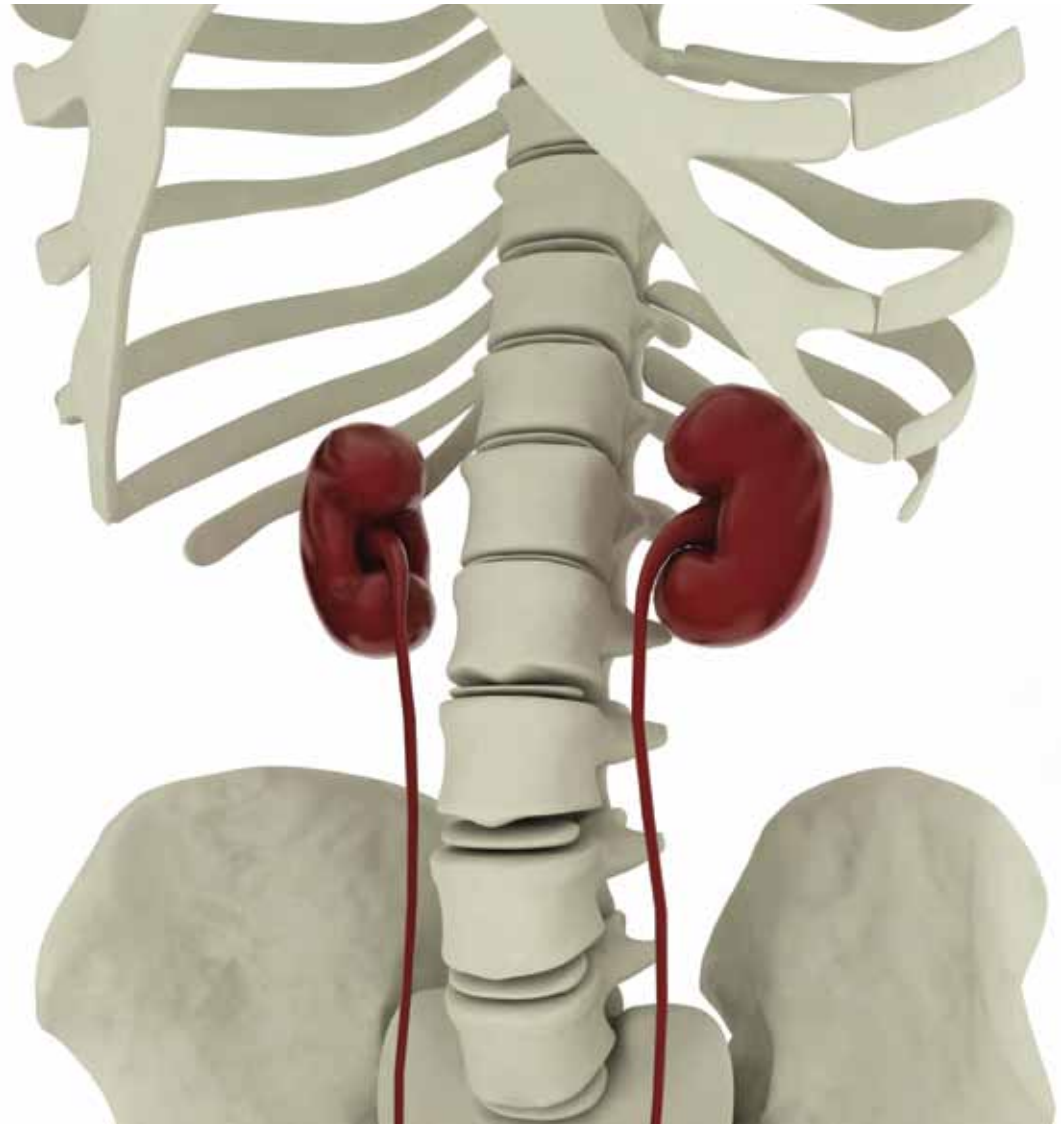
WORLDVIEW COLUMN

연재칼럼

메디컬칼럼 Cure & Care

피터 드러커와 콩팥

피터 드러커와 **콩팥**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원장을 지냈다.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 여섯 번째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콩팥은 보통 강낭콩 모양으로 아기 주먹 크기의 장기가 복부의 뒤쪽에 자리 잡고 있다. '신장'이라는 한자어와 함께 '콩팥'이라는 한글이 함께 쓰이고 있는데, 아마도 그 모양이 콩과 팥을 닮아서 그렇게 부르지 않나 싶다. 콩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대사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이다. 즉 잘 구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다시 사용할 것은 흡수하는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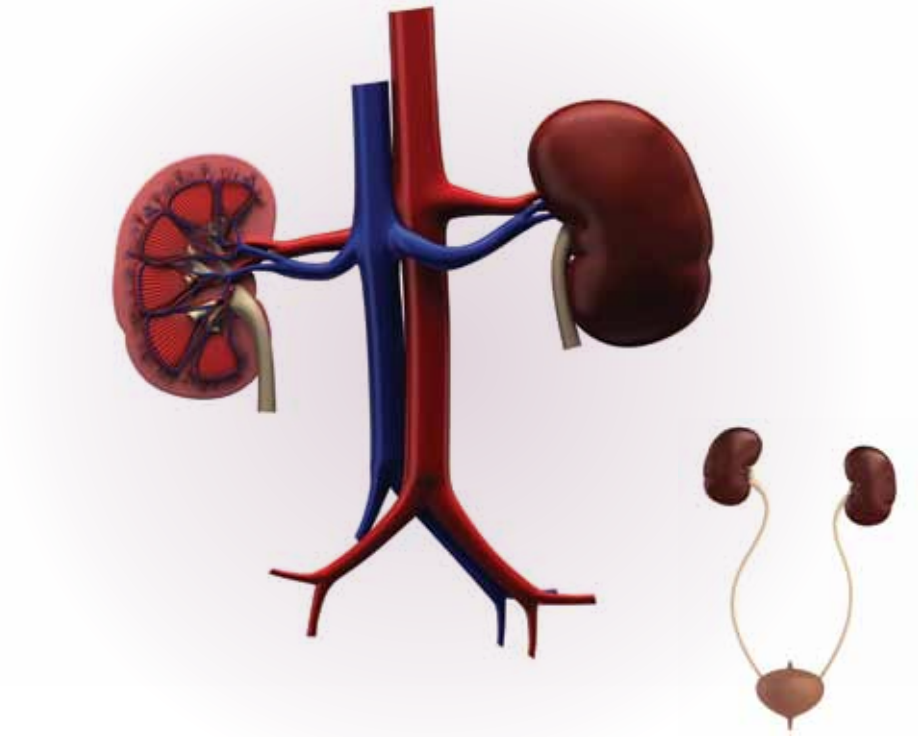
콩팥은 작지만 인체에서 단위 면적당 혈관의 분포가 가장 많은 기관이다. 체중의 5% 정도에 불과하지만,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혈액의 20%가량을 공급 받는다. 하루로 치면 약 160리터나 된다. 각각의 콩팥에는 약 1백만 개의 콩팥단위(네프론)가 들어 있다. 이런 콩팥단위로 들어간 물질들은 마치 트롬본의 나팔 부분처럼 생긴 사구체를 통과하여 구불구불한 트롬본의 몸체를 지나면서 여과의 과정을 거쳐 화학적인 균형을 잡게 된다. 이러한 콩팥은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 외에도 체액의 전해질 조절, 적혈구 생성, 호르몬 분비와 비타민D 활성화로 칼슘대사를 조절하는 일 등을 한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누구보다도 콩팥의 기능을 잘 이해하여 경영학에 절묘하게 적용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혁신에 관한 콩팥의 비유이다. 드러커는 늘 "혁신을 위해서는 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즉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런 결정은 '체계적 폐기(systematic abandonment)'라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콩팥이 어떻게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몸의 균형을 이루어가는지 공부하면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음료수를 마시고 땀을 흘리고 근육이 수축하는 등의 모든 대사과정의 결과인 대사산물은 혈액을 타고 돌다가 콩팥의 작은 기본단위인 네프론에 도달하게 된다. 일단 이곳에 도착하면 실타래처럼 생긴 혈관들을 지나가면서 서로 연접해 있는 혈관세포와 콩팥의 세포들이 몸 안의 노폐물들을 분류하기 시작한다. 특히 요소, 크레아티닌, 요산과 같은 질소 화합물들과 약물의 대사물질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배설하여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한다. 만일 콩팥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이러한 대사산물(노폐물)이 몸 안에 쌓이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게 된다.

우리 몸 안에서는 항상 '체계적 폐기'가 일어나고 있다. 콩팥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폐기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콩팥은 부지런히 물을 재흡수하여 소변의 양을 줄인다. 우리 몸의 전해질(간략히 말해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로 혈액 속에서 전리하여 생리적 작용을 나타내는 것) 균형에 문제가 생기면 콩팥에 도달하는 이들 전해질의 배설과 흡수를 조절하여 균형을 맞춘다. 버릴 것을 제대로, 확실하게 버려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콩팥의 '체계적 폐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다.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는 것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스스로 버릴 수 없는 단계가 되면 응급수단으로 '혈액



투석'을 해야 한다.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힘을 사용하여 버려야만 하는 것이다. 스스로 버리지 못해서 생긴 혈액 속의 찌꺼기를 혈액투석장치가 대신해 주어야만 살 수 있다. 살기 위해 어떻게든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콩팥은 우리 몸에 두 개가 있다. 대개 두 개씩 있는 장기들은 한 개가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 한 개의 콩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주어도 나머지 한 개의 콩팥이 거의 완벽한 기능을 수행하여 우리 몸에서 콩팥이 수행해야 할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콩팥(신장) 이식이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버려줄 수 있는 하나의 콩팥이 대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몸속으로 들어가 본래 자신의 체계적 폐기의 역할을 말없이 수행한다. 하나의 장기가 한 사람을 살린다. 다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 그 사람 전부를 살려주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저 버려 주기만 하는데도.

어떻게든 모으고 소유하려고만 하면, 그것이 음식이든 금전이든 우리의 몸과 마음에 노폐물이 쌓이게 된다. 일종의 대사증후군이 생긴다. 피에 노폐물이 넘쳐 콩팥에 도달하는 찌꺼기가 많아진다. 버려지는 것보다 쌓이는 것이 많을 때, 우리 몸은 질병의 그림자에 가까워진다. 잘 버려야 한다. 그래야 산다.

피터 드러커는 콩팥의 체계적인 폐기의 기능을 혁신과 연결하였다. 한자어 혁신(革新)에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 새롭게 만들어내는 가죽이라는 뜻이 있다. 새롭게 되기 위해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우리 몸의 콩팥이 늘 바르게 버려주고 있어 감사하다. 체계적으로 버려 주는 콩팥 덕분에 드러커도 지적인 기쁨을 느껴 보았으리라고 생각하니, 콩팥은 여러 사람을 살리는 것 같다.

SICA
www.sicakorea.org

신입생 모집

2015년 유·초·중등(서울 캠퍼스)
2016년 중·고등(여주 캠퍼스)

SICA는 **기독교 고전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유치부 및 초등 과정은 각 과목의 **문법 단계**(Grammar Stage), 중등 과정은 **논리 단계**(Logic Stage), 그리고 고등 과정은 **수사 단계**(Rhetoric Stage)로 이루어집니다.

SICA의 교육 특성 Education Advantages

Classical and Christ Centered Education	History-based Curriculum	Biblical Worldview
기독교적 고전교육으로 가르칩니다	역사로 통합하여 가르칩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칩니다

홈페이지 www.sicakorea.org | **주소** 서초구 양재동 363번지(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문의** 02.557.7710

SICA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학원
문의: 02.557.7710 | info@sicakorea.org

서평 〈세이빙 다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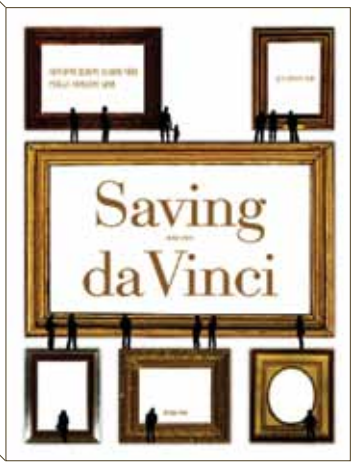
세속주의 세계관과 기독교 예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고의 혼란을 줄이고 '기독교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H. 블레마이어(Harry Blamires)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어떤 준거틀을 갖고 사고하는 지에 따라 '세속적으로' 사고하는 것과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것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세속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으로만 한정된 준거틀 속에서 사고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적 판단기준틀에 뿌리를 둔 계산법을 고집하는 것이며, 반면에 '기독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구속받고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운명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계된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만일 후자의 준거틀을 견지할 수 있다면, 세속적으로 사고하는 것과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것의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혼란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은 아무래도 첨예한 사고들이 충돌하는 사상 및 예술 분야일 것이다. 낸시 피어시(Nancy Pearcey)의 저작 『세이빙 다빈치』의 부제 "세속주의 문화의 도전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의 답변"(A Call to Resist the Secular Assault on Mind, Morals & Meaning)에서 보다시피 모든 삶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속적인 사상들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 그것이 과학, 철학, 인문학, 예술들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다. 세속주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조명이란 주제도 그렇거니와 500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저술을 정리하기에 너무도 벅차기에 이 서평에서는 예술 분야에 한정하여 책의 요지를 간략히 스케치해보고자 한다.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 현대회화의 발자취』,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우리 미술 100년』이 있다.

낸시 피어시 저 | 홍종락 역 | 복있는사람



계몽주의와 그 유산

이 책은 크게 두 부분, 즉 1부에서는 세속주의의 전 세계적 위험과 그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을 묘사한다. 1장은 우리가 어디서 살고 일하든 누구나 상대해야할 거대한 세계관인 세속주의를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고, 2장은 현대 세속주의의 핵심이 '사실과 가치의 양극화'에 있다고 보고, 진리에 대한 견해이자 권력 획득을 위한 전략으로 삼는 세속주의의 두 개념을 살핀다.

저자의 관심사는 2부에 집중되어 있다. 세속주의가 얼마나 번창하게 되었는지를 "세속주의로 가는 두 갈래길"에서 검토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현대의 거의 모든 세계관은 크게 두 무리로 나뉘는데 그 기원은 '계몽주의'와 '낭만주의'로 요약된다. 저자는 세속주의 세계관의 공통점을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추론에 있다고 본다. 즉 모든 사상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모종의 궁극적 범주를 제안하고 우주 전체를 하나의 상자에 가두려고 했는데 계몽주의에서는 '물건상자'에, 낭만주의에서는 '마음상자'에 각각 가두려고 했다고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계몽주의자들이 '물건상자'로 여긴 것은 '과학'을 진리의 유일한 원천으로 여긴 것이다. 많은 사상가들은 과학혁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과학을 진리의 유일한 원천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과학적 방법으로 알 수 없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실재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이제 과학은 세상을 연구하는 한가지 방법이 아니라 배타적인 세계관, 곧 과학주의 또는 실증주의로 격상된 것이다.

피어시는 예술이 이 세계의 물질적 사실을 보고하는 일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생겨나면서 예술의 주제도 질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본다. 그전까지만 해도 예술가들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보이게 표현하였는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술가들은 시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그릴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프란시스코 고야의 〈5월 3일〉과 미구엘 감보리노의 〈다섯 발렌시아 수도사의 처형〉은 세속주의 접근방식이 기독교세계관을 어떻게 몰아냈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실례이다. 고야의 작품에서 주인공

은 살인자들에게 절망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인 반면에, 감보리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정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하늘을 우러러본다. 곧이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순교자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고야의 경우 하늘은 닫혀 있고 적막하기 그지없다. 저자는 이 작품을 통해 계몽주의 이론가들이 새로운 과학이론을 손에 넣고는 기독교적인 맥락을 제거해버린 것처럼, 예술에서도 경험적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것은 모두 신화나 전설로 치부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밝힌다.

그러면 실재를 경험적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은 예술가들도 있었을까? 물론이다. 저자는 기독교 예술가들이 경험세계를 존중하는 성경의 입장을 취하면서 이것을 예술로 승화시켰다고 말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고대 철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예술가들은 실재보다 이성을, 개별적인 것보다 보편적인 것을 우선시했으며, 각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는 특성에 존엄이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가톨릭 신자였던 프랑수아 밀레가 "농부에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에나 나옴직한 위엄을 부여한 첫 번째 화가"가 되었으며, 숱한 기독교 명화를 남긴 헨리 태너가 우습고 어리숙한 존재로만 인식되었던 흑인 노예를 아이를 돌보는 다정다감한 인물로 묘사한 것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뒤엎는 것이었다. 기독교 사실주의자들은 일상의 경험을 중시하면서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에만' 눈이 고정되지 않도록 했다. 예수님이 죄인과 창녀를 가까이 하셨듯이 기독교예술가들은 각 개개인의 삶과 형편을 실감나는 조형언어로 형상화하였다. 이처럼 저자는 계몽주의 시대에도 기독교 예술가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세속주의의 흐름에 맞서 싸웠음을 지적하고 있다.

낭만주의와 그 유산

저자는 세속주의를 지탱하는 다른 축인 낭만주의와 그 유산을 7장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한다. 계몽주의 세계관의 등장은 자연에서 영적, 도덕적 의미를 제거했고 그로 인해 자연은 고작해야 톱니와 기어로 구성된 복잡한 기계장치로 환원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낭만주의자들이 볼 때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인간이 언제나 보아왔던 친숙한 세계가 갑자기 별개의 적대적인 두 세계로 이등분된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미적, 도덕적 경험이나 마음, 의미, 목적과 관련된 질(質)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예술에서 그런 항목들을 빼버리는 것은 달리는 자전거에서 바퀴를 빼버리는 것과 같다. 많은 낭만주의 예술가들이 이런 생각에 반응해 과학을 적으로 대했으며, 과학의 기술적 응용도 똑같이 파괴적으로 보았다.

거기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이론가로 저자는 칸트의 사상에 주목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미학이론은 '창조의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예술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설계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칸트는 자연이 신의 설계물이라고 믿지 않았고,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설계의 개념에서 분리해 냈다. 칸트의 지적 체계에서 아름다움은 더 이상 자연물 자체의 특성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에 부과하는 '정신의 구성물'에 불과하며, 상상력이 가진 '아름다움을 만드는 힘'의 산물로 기술된다. 이로써 칸트의 관념론은 낭만주의에 '자신감'을 불어넣은 계기이자 '절망의 근원'이 되었음을 낸시 피어시는 예리하게 지적하는데 '자신감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기계론적 과학의 생기 없는 차가운 세계를 넘어서는 그 무엇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절망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 내면을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예술적 창조를 더 이상 '

장인'이 아닌 '종교적 창조주'의 위치에 놓았다는 사실이다.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가 지적한 것처럼 "예술가가 창조주 신이 되었다"고 말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낸시 피어시는 낭만주의 출현과 함께 예술이 오랜 기간 간직해 온, 현실을 재현하는 '거울의 은유'는 자기 빛을 비추어 세상을 밝히는 '램프의 은유'로 대체되었다고 본다. 예술가의 창의적 상상력이 세상에 더 깊은 의미를 불어넣으리라고 본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예술의 주된 평가 기준은 '진리'가 아니라 '진정성'이 된다. 즉 "예술작품이 외부세계에 충실한가?"가 아니라 "시인이나 예술가의 내면세계에 충실한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다.

예술가의 내면세계에 대한 신뢰는 회화의 경우 '영적 색채'의 강화로 나타났다. 예술가들은 주제와 의미를 저버리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의 어둠과 심연'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고 본다. 낭만주의의 영향은 현대미술에서도 지속된다. 이같은 흐름은 현대미술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는데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자 라인하르트는 물질세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침내 사고 자체를 초월하고 내면의 침묵에 이르러 무한이나 공(空)과 하나가 되는 추상회화를, 칸딘스키는 신지학에서 영감을 얻은 추상미술이 '영적 갱생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또 한명의 화가 마크 로드코는 운무(雲霧)가 잔뜩 드리운 듯한 그림으로 유명한데 그녀는 색채와 형태의 관계에만 관심을 둔 다른 화가들과 달리 종교적 감동을 전달하려고 했다. 그러나 특정한 신성 개념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궁극적 실재를 거대하고 미분화된 색면으로 암시하려 했다. 그러나 로드코의 작업은 삶에 가장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모두 상층부로 보냄으로써 그것들을 '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경험'으로 왜곡시켰다. 무엇보다 예술가의 주관을 중시하는 '램프의 은유'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진리와 연결되지 않는 이상 그것은 '불꺼진 램프'가 되고 말 것을 낸시 피어시는 경고한다.

그러나 저자는 통합적 구심점을 상실한 시대에도 서양의 미술가들이 기독교의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잊지 않았다고 한다. 저자에 따르면 기독교 예술가들은 아무리 시대가 어렵더라도 '근대적이면서 참으로 성경적인 양식'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으며, 그 결과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에 만연한 잔인함과 부패를 정직하게 대면했다"고 말한다. 이같은 점은 특히 조르주 루오의 〈미제레레〉 연작 판화에서 보듯이, 기독교 표현주의의 안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인간이 처한 고통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셨다는 복음의 놀라운 주장을 헤아릴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진리의 회복

기독교 예술가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세속주의의 독재'는 막을 수 없었다. 그러면 계몽주의와 낭만주의가 간과한 것은 무엇일까? 저자는 온갖 이름의 세계관들을 이솝우화에 나오는 '장님과 코끼리'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각 사상가는 자신이 파악한 실재의 일부분이 다른 모든 것을 해석할 열쇠라고 확신하지만 그것은 어떤 부분을 절대화시킨 것이며 그것을 토대로 세워진 세계관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며 일면적이며 균형을 상실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어시는 '물건상자'와 '마음상자'와 같은 세속주의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물론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이점을 염두에 둔 듯 실재를 '상자'에 가두는 것을 극도로 혐오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보편적으로 타당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견해는 참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에 갇혀 있다. 아무런 이야기도 들려주지 않고 따로 떨어진 채 제멋대로 떠다니며 일체의 판독을 방해하는 담론들은 모종의 논리적 연관성이나 일관성을 찾는 인간의 자연적인 시도를 방해하는 데는 주효하지만,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역시 대안으로 삼기 힘들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피어시의 말대로 온전한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 유일하다. 기독교는 초월적인 창조주를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창조세계의 어떤 부분도 우상화하지 않으며, 창조세계의 어떤 부분도 부인하거나 폄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을 긍정하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세계관을 제공할 개념적 자원을 넉넉히 갖추고 있다고 본다. 그녀가 바라보는 기독교세계관은 "서구 정신의 분열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에서 자유를 회복시킬 유일한 길"로서 파악된다. 아마 이것이 세속주의 세계관과의 경합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핵심임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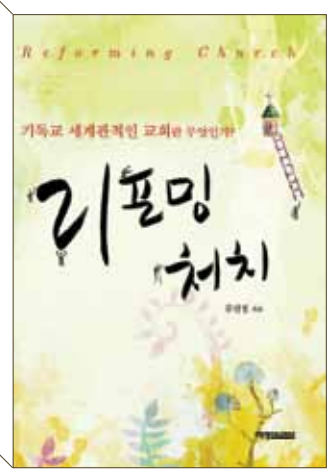
필자가 『세이빙 다빈치』에서 가장 흥미롭게 여긴 부분은 '바흐 변증학교'라는 에필로그이다. 저자는 바흐가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을 예로 들면서 바흐로 인해 이미 수 만명의 일본인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으며, 바흐의 음악이 관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해주었음을 밝힌다. 그리하여 저자는 "오늘날에도 바흐같은 작곡가는 있을까?"하는 질문을 책의 말미에 던진다. 성경적 진리를 탁월하게 표현해내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도록 이끄는 예술가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예술가들의 몫으로만 돌릴 문제는 아니다.

끝으로 피어시는 "교회는 풍부한 상상력과 시각화 능력으로 성경의 진리를 표현해내는 특별한 예술가들을 기르는 곳"이었음을 상기하고 우리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 기독교 예술가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지적 체계로만 여기거나 유행 정도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세계관에 비추어 가장 깊은 욕구까지 변화시켜가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더욱 거룩하게 바치는 것은 물론이고 세속적 세계관의 포로가 된 사회를 해방시키는 중요한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것만큼 절실한 당면과제는 없을 것이다. 그녀의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객관적이거나 가치중립적인 지대에 머무는 것에서 나와 성경적 진리에 접목되어 '아름다운 구원'의 세계를 드러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혁명'에 앞장 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거짓 우상에 맞서 싸우고 그것들이 우리 머리와 가슴을 휘두르는 영향력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치열한 문화의 그라운드에서 그리스도인은 '구경꾼'의 입장에서 '참여자'로, '후보 선수'에서 '주전선수'로, 그것도 아니라면 '열성적인 응원단'의 일원으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서평 〈리포밍 처치〉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한 일꾼을 만드는 교회

김신정 저 | 예영커뮤니케이션



맛 잃은 소금

소금이 맛을 잃었다.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다. 만신창이가 된 한국 개신교 이야기이다.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이후 가장 부패한 교회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과연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작금의 한국교회의 위기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존재와 정체성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의 회복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 최근 부쩍 늘어난 교회 관련 서적들이다. 미셔널 처치, 슬로우 처치, 심플 처치, 이머징 처치, 에브리데이 처치(일상교회), 센터 처치 등이 그것들이다. 그리고 최근 또 한 권의 교회 관련 서적이 출간되었다. 바로 김신정 목사의『리포밍 처치』(Reforming Church)이다.

교회와 기독교세계관과의 만남

리포밍 처치를 번역하면 "교회 새롭게 하기", "개혁하는 교회" 정도가 될 것이다. 제목만으로는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할지, 개혁하는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이 책의 부제는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란 무엇인가?"이다.『리포밍 처치』는 기독교세계관이 어떻게 교회와 목회의 현장 속에 접목이 되고, 체화되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책이다. 그간 기독교세계관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나왔지만 교회와 목회현장 중심의 접근이란 점에서 이 책은 남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김정일 한국외국어대학교(B.E.)와 총신대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했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MACS)하고 현재 삼일교회에서 30대 부부들의 공동체인 청장년2진과 기독교세계관아카데미를 담당하며 기독교세계관적인 목회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나라를 꿈꾸고 있다.

한국에 기독교세계관이 소개되고 세계관운동이 진행되어 온지 어언 30여년이 되었다. 그간 기독교세계관운동은 주로 학문과 교육, 문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을 뿐 기독교세계관의 목표대로 삶의 전 영역으로 그 실천이 확대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렇게 된 여러 원인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기독교세계관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교회와 목회의 영역에서 정작 기독교세계관의 영향이 미미했다는 점은 뼈아픈 원인중 하나가 될 것이다. 저자는 누군가는 이미 시도했어야 할 이 일에 깃발을 들고 나섰다. 그가 깃발을 흔드는 목적은 이것이다. 첫째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요, 다음은 그 일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의 효용성 문제

저자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제시하는 방법은 기독교세계관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세계관의 효용성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반 복음과상황의 지상논쟁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더 지났다. 포스트모던 사회, 세속화된 이 시대 속에서 아직도 기독교세계관을 이야기 하는 것은 혹 추억의 옛 노래를 리믹스 하는 격은 아닐까? 특히 저자가 이 책에서 사용하는 '기독교세계관'이란 '모든 기독교인이 지니는 세계관'이란 넓은 의미가 아니고 창조-타락-구속으로 표현되는 '개혁주의 기독교세계관'이기에 더욱 이런 질문이 생길만 하다.

개혁주의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그것이 명제적, 사변적이란 것이다. 또한 변혁을 위한 실천전략과 행동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세계관 이론서가 아니기에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저자가 기독교세계관운동가로서 걸어온 삶의 행보와 이 책에서 제시하는 기독교세계관적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 기독교세계관이 목회에 접목될 때 제기될 수 있는 효용성의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하고 있다. 저자에게 기독교세계관은 오래전부터 삶이자 실천의 문제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저자가 오래 전 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운동'(www.clm.kr)을 세워 현재까지 교회와 성도의 삶의 변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기독교세계관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독교세계관운동가로서 그의 헌신을 남다르게 평가하는 것은 저자가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 기독교세계관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구조와 틀을 만드는 시도를 지속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독교세계관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위한 체계로서 작동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오랜 고민을 통해 찾게 된 실제적인 전략과 가이드들을 이 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기독교세계관이 소개된 지 30여년이 지났는데도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 이제는 용도 폐기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저자는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듯 보인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해 보았습니다. 함께 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한 일꾼을 만드는 교회

저자는 김전도사와 소빛교회 담임목사인 이목사라는 가상적인 인물을 내세워 대화 형식으로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를 그려 나가기 시작한다. 2장에서는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먼저 한국교회에 대한 진단부터 시작한다. 저자는 구체적으로 7가지의 한국교회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안식이 없는 바쁜 주일, 둘째 목회자와 교인의 갈등, 셋째 부족한 기독교교육, 넷째 교회 안에 갇힌 신앙, 다섯째 평신도 사역 부재, 여섯째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신앙, 일곱째 교제가 없는 교인 관계이다. 저자가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수동적인 교인, 둘째 목회자와 교인에게 있어서 소명의 순수성 상실, 셋째 이원론적 신앙관 때문이

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4가지 지향점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신앙과 삶의 일치, 평등한 교회, 공동체성, 그리고 하나님나라의 확장이다. 저자가 말하는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는 이런 4가지 지향점을 통해 "세상을 구속하고 세상을 하나님나라로 만들어 가는 사역자를 양성하며 그들을 돕는 교회"이다.

저자는 목회의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샬롬 목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샬롬 목회는 '하나님과의 샬롬', '나 자신과의 샬롬', '이웃과의 샬롬'이다. 이웃에는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과 자연환경과의 샬롬을 포함하고 있다. 기독교세계관이 말하는 구속의 범위는 인간의 영혼구원을 넘어 십자가를 통한 만물의 회복(골 1:14~20)인데 바로 이 강조점이 샬롬 목회에 나타나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한 교인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가 목표로 하는 교인상은 "철저히 헌신된 교회 일꾼(순장, 구역장, 교사)"이 아니다. 저자에 의하면 "철저히 헌신된, 전인적인 하나님나라의 일꾼"이다. 이 목표를 위해 저자는 '직업소명'을 강조한다. 저자가 '직업소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직업이 소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업이 소명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직업소명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에 머물지 말고,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철저한 확신과 헌신된 태도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는 것"임을 말한다.

전인적인 하나님나라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저자는 정식교인이 될 때 '교인서약'을 제시한다. 교인서약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동의'로서 경건생활, 안식, 청빈생활, 미디어의 건전한 이용, 이웃에 대한 친절과 공의, 나눔과 구제, 가정생활, 기독교 교육의 실천, 친환경생활, 능동적인 정치참여 등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직분자 서약은 있어도 이런 생활규칙과 원리를 제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저자는 이 서약이 새로운 율법이나 굴레가 아니라 성도의 삶을 조화롭고 풍성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교인서약'에 이어 '주권선교사'라는 새로운 호칭을 제시한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서 분명한 역할을 인식하고, 선교사와 같이 이 땅이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하기 위함이다. 물론 이 호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세계관에 관한 공부, 영역별 훈련 등 소정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후에 주권선교사로 임명될 수 있다. 주권선교사에 대한 교육은 8장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된다.

교육, 기독교세계관적 교회의 핵심전략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자는 '교육'을 매우 강조한다. 교육은 세계관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총 9개 장중에서 세 장(5, 6, 7장)을 교육에 할애 한다. 5장에서는 성인교육을 다루는데, 성인교육은 새신자교육과 기존신자 재교육, 하나님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보도록 하는 마태복음 성경공부, 성경적용기본교육, 주권선교사 기본교육, 주권선교사별 사역실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성경적용기본교육은 성경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주제는 가정, 이웃, 안식, 돈, 환경, 미디어, 정치, 철저한 헌신이다. 주권선교사별 사역실무교육을 마치면 주권선교사로 파송되고 사역을 시작한다.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는 따로 제자훈련생을 선발하여 시행하지 않고, 전 성도를 대상으로 주권선교사 교육을 시행한다.

6장에서는 주말교회 기독교학교를 소개한다. 한국교회의 교회교육은 대개 주일 중심의 교육이다.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는 주일에는 온전한 안식을 위해 예배에 집중토록하고, 교회 일이나 성경공부를 하지 않는다. 대신 주말교회 기독교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저자가 목표로 하는 주말교회 기독교학교는 '하나님나라 시민윤리'를 가르치는 학교, 성경적인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을 지닌 아이로 교육하는 학교, 아주 성실히 배우는 학교, 기독교적인 학문과 커리큘럼이 있는 학교이다. 일주일에 주일 하루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의 시간을 통해 기독교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현재의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주말교회 기독교학교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여겨진다.

7장에서는 주말교회 기독교학교의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프로그램을 교안까지 제공하며 상세하게 소개한다. 기독교세계관이 교육과정과 내용에 적용되어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주권선교사 공동체

한국교회 안에는 구역, 목장, 셀, 순 등과 같은 소그룹이 있어 공동체성을 지양한다. 전통적인 소그룹 구성 기준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는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도 있다.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의 소그룹은 어떻게 구성될까? 8장에서 소개하는 주권선교사 공동체는 그 기준이 개인이 관심을 가진 사역이다. 주권선교사 공동체는 크게 직장영역, 선교영역, 이웃영역, 교육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그 영역마다 세부적인 셀로 다시 나누어진다. 직장영역에는 직장사역셀, 자영업셀, 의료셀, 간병인셀, 기독교학문셀, 목회셀이 선교영역에는 국내전도셀, 해외선교셀, 문서선교셀, 멘토셀, 중보기도셀이 있다. 이웃영역에는 가정사역셀, 구제셀, 봉사셀, 환경보호셀이 있고, 교육영역에는 교사셀, 교회학교셀, 야학셀, 공동육아셀이 있다. 주권선교사 셀들은 자발성이 강하다. 교회적으로는 각 셀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조정하지만, 간섭하지는 않는다.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따로 모임을 하지 않고, 각자 관심이 있는 셀에 속하기도 하고, 관심이 있는 다른 셀에 지원사역을 할 수도 있다. 셀간에는 어떤 형태로든 연합해서 사역을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셀을 통해서 하려는 일은 하나님나라의 확장이다.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 운동 확산을 위한 제언

기독교세계관이 강조하는 주제들은 이원론의 극복(신앙과 삶의 통합), 개인의 구속을 넘은 만물의 변혁적 회복(구속의 포괄성, 문화변혁), 복음의 통전성과 공공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나라의 증언 등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의 모델은 바로 이런 기독교세계관의 강조점들이 녹아든 교회이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이 책에서 그려진 소빛교회 즉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가 결코 완전한 모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에 대한 논의들이 활성화 되고, 관심 있는 목회자들을 네트워크 하여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운동을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다. 첫 번째는 기독교세계관적 교회론의 정리이다. 『리포밍 처치』는 교회론을 본격적으로 정리한 책이 아니라 기독교세계관을 교회와 목회 현장에 접목한 모델을 제시한 책이다. 물론 그 현장 속에 교회론이 녹아 있겠지만, 기독교세계관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먼저 기독교세계관적 교회의 교회론이 명확하게 정리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리포밍 처치』에는 빠져 있는 '기독교세계관적 설교'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를

꿈꾸는 많은 목회자들이 분명코 궁금해 할 영역이 바로 설교일 것이다. 설교는 기독교세계관의 확산을 위해 교육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의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인 전성민교수가 세계관적 주해와 설교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며 학문적인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다. 앞으로 세계관적 주해와 설교 분야에 더 많은 연구와 나눔이 필요하다.

셋째는『리포밍 처치』에 덜 강조된 것처럼 보이는 복음전도에 대한 부분이다.『높아진 문화명령, 낮아진 복음전도』(박영덕 지음/생명의말씀사)라는 제목의 책도 있지만, 기독교세계관이 문화변혁, 사회변혁을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복음전도가 약해 질 수 밖에 없다.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에 의하면 복음전도는 '궁극성(Ultimacy)'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는 의도적으로 더욱 더 복음전도에 열정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서 사회변혁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기독교세계관적인 전도법이라고 생각되는『냅킨 전도』(제임스 정 지음/IVP)와 같은 전도방법을 소개하고 실천하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넷째는 세속화 되고 혼합주의가 만연한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이원론 극복을 강조하는 기독교세계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된 의식구조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동화된 경향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창조의 선함을 강조하며 죄 많은 세상을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선물을 가지고 창조세계에 뛰어들라고 말하는 기독교세계관은 국제신학대학원 김동춘교수의 지적대로 "세상의 악마적 질서와 구조와 대립하여 고민하지 않고 그 안에 안주하게 할 수 있는 논리구조"를 지니고 있다. 즉 "적응주의적 기독교 세속화 이론"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교회와 목회의 현장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교회 모델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세계관적 교회의 DNA를 발견하고 공유함으로 현실 속에서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그려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미셔널 처치, 슬로우 처치, 티모시 켈러(Timothy J. Keller)의 책 센터 처치(Center Church) 등을 살펴보면 기독교세계관적 교회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본질은 만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웨신대 김선일교수는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장소로서의 선교', '이웃됨의 선교', '일상의 선교', '몸과 영혼을 통합적 존재로 보는 몸의 선교', '삶에서부터 선교를 실천하는 보냄 받음' 다섯 가지로 정리하는데, 이중 '일상의 선교'와 '몸의 선교', '보냄 받음'은 기독교세계관의 강조점에 잇닿아 있다. 하나님나라복음을 강조하는 나들목교회(www.nadulmok.org)의 4가지 핵심가치인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에서도 기독교세계관적 교회의 DNA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록 기독교세계관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기존의 교회와 목회의 현장에서 기독교세계관적 교회의 DNA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기독교세계관적 교회의 모습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리포밍 처치』는 기독교세계관적 교회에 대한 설계도이다. 아직은 상상속의 교회이다. 그래서 이 책은 기독교세계관적 교회운동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의 간절한 바람대로 기독교세계관적 교회의 꿈을 가지고 각자가 그려보고 또 지어가던 교회의 모습들이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점점 더 구체화 되어 나가길 기대한다. 그리고 멀지 않아 이제는 설계도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소빛교회와 같은 기독교세계관적 교회를 곳곳에서 만나 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다시보는 책 〈왜곡된 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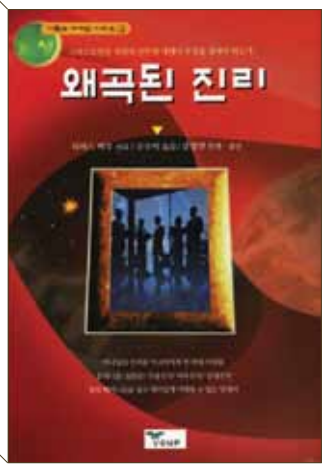
세상에서 고통을 공유하는 태도

어떤 여성이 고향을 방문해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지냈고 나중에는 같은 대학, 같은 과, 같은 기독교 동아리 활동까지 한 절친 중의 절친이었다. 졸업 후 그녀은 결혼하여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착했다. 이때문에 그녀는 친구들을 자주 만날 수 없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를 만난 그녀는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는 최근 남편과 교회를 옮기고 신앙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고 하였다. 이전에 다니던 교회들은 신앙의 확신과 열정을 주지 못했지만 이곳에서는 자신이 왜 기독교인인지와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깊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후에 친구는 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남편에게 더 이상 어떤 책도 읽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다른 책들이나 관심은 쓸모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구가 한 말은 그녀에게 충격적이었다. 친구는 달라진 사고방식과 확신에 찬 태도로 다짜고짜 자신은 그녀를 용서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젠 이야기해도 된다면서 자신은 그녀를 정말 싫어했고, 함께 하기 싫었으며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녀는 친구의 일방적인 고백과 용서에 혹시 자신이 친구에게 상처준 일이 없는지 돌아볼 여유도 없이 당황스러웠다. 그러한 친구의 확신에 찬 태도로 그녀는 친구와 함께 했던 모든 추억들을 의심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말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자기만 확신하고 괜찮으면 되는 건가?"

이춘성 전북대학교와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라브리 공동체에서 30대를 보냈다. 지금은 고신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현재 강릉한마음교회 교육목사로 섬기고 있다.

리처드 마우 저 | 오수미 역 | CUP



리처드 마우는『왜곡된 진리』라는 책의 초반에 진리에 확신에 찬 기독교인의 무례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근본주의자들은 단순한 것을 좋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문제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의와 불의, 진리와 오류 사이에서 명쾌하게 선을 긋는 능력이 있다는 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35)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을 준다. 반대로 그 밖에 있는 자들과 공동체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을 이들은 진리를 위한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명쾌하게 나뉠 수 있을까?

『왜곡된 진리』라는 책 제목이 말해주듯 마우는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왜곡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왜곡되었다는 것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말과 같은 것일까? 이점에 있어서 마우는 의문을 제기한다. 마우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의 진상은 완전한 거짓이 아닌 왜곡된 진리에 속은 사건이라고 말한다.(61) 사실 왜곡된 진리라는 말에는 어패가 있다. 진리라는 말에는 강한 배타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와 거짓의 반정립적(antitheis) 대립은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준거점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사탄은 분명한 반정립적 상대이다. 그러나 사탄의 꾀임을 받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그 후의 모든 인간들을 사탄과 동일시 할 수 있을까? 만약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단칼에 '타락한 인간=사탄'이라는 등식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진리)으로 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해 사탄이 왜곡된 진리라는 전략을 사용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되어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어떤 진리에 대한 깊은 욕구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우는 이를 "희망과 두려움"이라고 말한다. 난 이를 '근원적 안정'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하나님을 상실한 자는 하나님과 같이 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 안정을 잃은 인간은 인간에게서 안정을 찾는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희망과 두려움"이란 불안정에서 자유로운 존재들일까?

사실 기독교인들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근본적인 안정에 이미 들어갔음을 인정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과 다른 상태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왜곡된 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과연 받아들여 질수 있을까?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후서(2장 23~26절)나 다른 서신에서 거짓교사들과 타 종교인들을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말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그 이유는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그 중에 예수님에게로 돌아서는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논쟁처럼 우리의 모든 논쟁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아님을 인정한다. 그러나 마우의 말처럼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훌륭한 것이다. 복음적 호소로 영혼의 결실을 전혀 맺지 못하더라도 말이다."(50) 그 이유는 그러한 관용적 행동이 반쪽 진리인 "모든 시대의 희망과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고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이시대의 모든 인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실감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하면서 이런 행동의 무의미함을 강조한다. 난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기독교인들만을 사랑하라는 것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누가 너의 이웃인가'라는 예수님의 질문의 답에 기독교인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비기독교인들을 그저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만 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처사임이 분명하다. 오히려 이런 점에서 사탄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현명하다 할 수 있다.

마우의 책의 후반부에는 전반부에서 다룬 "희망과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통해 세상의 다양한 사상들 설명하고 분석하고 있다. 휴머니즘(인본주의), 일원론, 주술주의, 자연주의, 허무주의, 상대주의 등이다. 나는 이러한 사상을 다룸에 있어 여타 세계관 책과 마우의 책의 큰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우의 책과 같이 다양한 세계관을 소계한 대표적인 책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제임스 싸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은 다른 책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쓰였을 뿐 아니라 쉽게 읽혀 기독교 세계관 공부의 개론서로서 역할을 해 왔다. 이런 책들의 공통적인 접근법은 기독교 세계관 외의 다른 세계관의 위험성을 열거함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진리성을 극대화하는 반정립을 강조한다. 그러나 마우는 싸이어와 달리 인류가 추구한 다양한 세계관들과 기독교 세계관 사이의 공통 관심사가 무엇인지(희망과 두려움) 밝힘으로, 우리가 세상의 세계관들이 근본적으로 왜곡된 진리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접근의 장점은 위에서도 언급 했지만 두 가지로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인류가 공동으로 처한 위험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라브리에서 활동 했고 지금은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변증학을 가르치는 제람 바즈 교수는 수가성의 야곱 우물가에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했던 공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 한다. 그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도구였던 물그릇이었다.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대했던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물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그릇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 밥그릇으로 물을 마시겠다는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 하셨을까? 이는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시적인

표현이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이 그 여인의 부도덕한 남자관계에 대해서 눈감아주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지만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는 한없는 연민과 공감을 표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비록 죄인이지만 이들도 자신의 죄든 남의 죄이든 더 나아가 사회의 구조적인 죄악으로든 고통당하는 한 인간으로서 공감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이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 찾은 성과들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너무 확신에 차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들의 고통과 몸부림, 특히 허무주의자들의 절규를 아는 것은 구속받은 기독교인들의 과거이며 여전히 우리의 일부로 작용하는 어두운 그림자를 기억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함을 유지하게 하며, 승리주의라는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비기독교인과 대화하기를 그친다면 우린 당장이라도 승리주의라는 허상의 울타리를 치는 것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위선의 장막 속에 스스로를 숨기고 의로운 척하는 위선자로 거듭날 것이다. 이것이 그토록 예수님이 타파하고자 했던 바리세인들의 장막이었음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육체의 연약함 속에 괴로웠다는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목자 잃은 양들처럼 배회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던 예수님의 마음에 한 발짝 가까이 가려고 해야 한다. 그 무리들 가운데 나와 당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을 마치면서 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 전 까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세상 속에서 본질적 죄인인 불신자들과 실존적 죄인인 기독교인이 함께 동일한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공동전선을 펼치고 진리의 길을 통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설득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설득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일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단지 전선을 나눠 그들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으로 이분하여 우리의 탁월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우리 발 앞에 이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방식이라 생각한다면 폭력으로 굴복시키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같은 방식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십자가에서 사랑과 순종이라는 방식으로 이미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며 유일한 방법이다. 난 마우가 소개한 방법이 속 터지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누구보다 인내하심에 탁월하신 성령을 모신 자라면 인내의 열매를 기뻐함으로 맺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쉬운 길이 아닌 마치 요단강 앞에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로부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칼날 위를 걷도록한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난 하나님의 애리한 칼끝 위에서 좌우에서 빗발치는 비난에도 굴하지 않는 우뚝 선 어떤 기독교인을 상상해 보고 싶다.

본 칼럼은 지난 〈월드뷰〉 3월호 기획특집 칼럼에 대한 기고입니다.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갖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다른 관점,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info@worldview.or.kr)

과학의 겸손, 그리고 진화론을 포용하는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우려

최근 기독 지성 사이에서 기원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창조냐 진화냐 라는 무신론과 유신론 간의 충돌이 아닌 창조론 내에서의 젊은 지구론에 대한 비판과 논쟁이다. 젊은 지구론과 창조과학을 하나로 묶어서 비판하는 글들이 나오고 그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면서 논쟁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그런데 그 논쟁의 글들을 보면 이상한 점들이 발견된다. 우선은 젊은 지구론과 창조과학이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어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고, 둘째로는 진화라는 개념을 창조론에 접목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다. 예전과 다른 성격의 이 논쟁으로 인해 과학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과학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1. 과학의 겸손

창조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본 필자로서는, 누군가 젊은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 중 어느 것을 받아들이겠는지 묻는다면 나는 대답을 보류하겠다. 지구의 연대는 젊은지 오래되었는지 잘 알 수 없다는 입장, 또는 젊은 지구론도 맞을 수 있고 오래된 지구론도 맞을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이라고나 할까? 과학자로서 지적 논쟁을 피하려는 비겁한 자세라거나 지성이 죽은 자가 아닌가라는 비판을 들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뛰어나지는 않지만 나름 열심히 과학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싶다. 그런 나의 떳떳함 뒤에는 성경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와 판단의 기준으로 두는 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창세기를 비롯하여 성경 어디에도 지구와 우주의 젊거나 오래됨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언급이 없고 그것은 성경의 최대 관심사인 영혼 구원이라는 핵심과도 거리가 있는 주제이다. 오히려 과학을 하는 사람들끼리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서로 던져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하고 싶다. 지구와 우주의 연대해석 문제가 창세기의 표현으로 시작되는 것이라면 그 표현 해석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란에 매몰되어 있는 것보다는 기독 지성으로서 성경의 권위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것이 옳지 않을까? 창세기에 나오는 날(yom)이라는 개념이 24시간 하루라거나 특정한 다른 표현이라거나 어떻게 해석해도 그에 대한 근거와 논리들이 있고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설명 가능한 이론들로서 후보의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때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렸다는 확정을 지으려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이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확정을 지으려면 증거 제시가 아닌 증명을 해내야 할 일인데 기원과학의 본래 특성이 증거를 제시하되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닌가? 등등 이런 질문들이다.

과학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과학적 사실이라면 객관성과 재현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 기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과학을 이해하려면 우선 실험과학과 기원과학을 구분하여야 한다. 원인과 결과를 따져 과학적 사실을 입증해가는 실험과학과는 달리, 기원의 문제를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기원과학에는 피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과학적 방법론은 관찰 가능한 현상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기원과학적 증거와 추론은 제시할 수 있으나 기원에 대한 궁극적인 증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적 사실이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기

현창기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KAIST 생명과학과 박사. 세포생물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기원과학 분야에서, 공역서 '위대한 설계, 그 흔적들' ('Signs of Intelligence'의 번역서)와 공저 '기독교세계관으로 풀어보는 과학수업' 등이 있으며, "B 세포 성숙기작을 이용한 신다윈주의 자연선택 진화모델에 대한 비판적 고찰"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원과학적 주장들은 세계관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천문학이나 지질학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공부한 생물의 기원에 대한 분야에서는 나름 많은 고민을 오랫동안 하면서 답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온 것 같다. 그 고민과 연구의 과정을 통해 발견한 것 중 하나는, 생물의 기원을 말할 때 진화발생설이든 목적창조설이든 객관성과 재현성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과학적 사실이라고 못박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과학적 사실로 확정 지을 수는 없다. 이 이론들은 이미 세계관적으로 주어진 결론을 앞에 두고 그 결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들만을 모아 제시하게 된다. 이는 다른 모든 분야의 기원과학 이론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기원과학 분야의 태생적 특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세포소기관 중 하나인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세포내 공생설(endosymbiotic theory)'을 살펴보면 그런 특징을 잘 볼 수 있다. 어떤 원핵세포(세균)에 다른 호기성 세균이 들어가 공생하면서 미토콘드리아로 진화하게 되었다는 이 공생설은, 세균과 미토콘드리아 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유사성들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유사성은 진화생물학의 논리 전개에 있어 핵심 키워드이다.) 한 예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유전체와 리보솜을 가지고 있고 리보솜의 침강계수도 세균과 같은 70S 라는 점 등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공생설 또한 다른 진화이론들이 보여주듯이 과학적 사실이 아닌 하나의 세계관적 선택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선 리보솜의 유사성을 살펴보면, 세균 리보솜의 침강계수는 70S가 맞지만 미토콘드리아 리보솜은 식물에서는 78S, 효모에서는 73S, 포유동물에서는 55S로서 진핵생물체의 종류에 따라 각각 매우 다르다. 리보솜을 구성하는 분자들의 비율에 있어서도 관찰되는 현상은 유사성 논리를 크게 벗어난다. 리보솜은 단백질과 리보솜 RNA(rRNA)로 구성되는데, 세균 리보솜은 단백질:rRNA 구성비율이 33:67인데 반해, 미토콘드리아 리보솜(포유동물의 경우)은 69:31로 정반대의 비율을 보여준다. 세포내 공생설이 발표된 1970년 이후, 결코 단순 비교를 통한 유사성만으로 진화적 연관성을 특정 지을 수 없음이 추가적인 실험들에 의해 밝혀져 온 것이다. 유사성이 아니라 오히려 독특성이 더 드러나고 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세포 차원의 단백질 합성 시에는 30종류 이상의 tRNA가 참여하는데 반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22가지 tRNA만으로(동물의 경우) 단백질 합성을 수행하고 있으며, codon 인식방법 또한 독특한 mitochondrial code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체가 코딩하는 단백질은 전자전달에 필요한 것들로만 되어있다는 점에서 무작위적인 과정을 말하는 진화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다. 최근에는 생물정보학적 방법을 이용한 세균과 미토콘드리아 간의 유전자 수준의 유사성을 통해 공생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배경논리에는 여전히 유사성이 대전제로 자리잡고 있음은 다르지 않다. 세균과 미토콘드리아가 유사성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서로 유사하지 않은' 각각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실험과학을 통해 관찰되고 있음에도 진화론 학자들은 그것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유사한 점만을 선택적으로 연결하여 논리를 구성한다. 즉 미토콘드리아가 진화의 결과물임을 결론으로 확정 지은 후 그에 맞는 특성들만 뽑아 맞추는 극단적인 세계관적 고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유신론적 기원과학에도 동일하게 가해질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갖는 고유의 독특성만을 선택적으로 연결하여 지적인 디자인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는 설계이론 역시 그 의도적인 논리전개 방식은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결국 모든 기원과학이론의 논리는 세계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구와 우주의 연대문제로 돌아와 보면 어떤가? 이 젊은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 역시 절대적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은 기원과학의 이야기들이며 어느 편은 맞고 어느 편은 틀렸다고 누구도 확정 지을 수 없다는 논쟁의 본질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원과학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는 어떤 것일까? 기원에 대한 절대적 사실을 증명해낼 수 없는 과학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동시에 과학의 개념과 방법론으로 설명 가능한 논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당연하고 타당하다.

2. 진화를 수용하는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우려

젊은 지구론과 창조과학에 대한 비판의 글들을 읽으면서 가지게 된 또 한가지 불편함은 창조과학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게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젊은 지구론과 창조과학을 일대일로 동일시하여 젊은 지구론의 문제를 모든 창조과학 활동의 문제로 확대한 것은 지나치다 못해 심각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비약이다. 창조과학의 기본 입장은 지구와 우주의 연대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젊은 지구론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창조과학 안에서도 연대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으며 오래된 지구론을 포함한 다양한 입장들이 공존한다. 필자가 소속된 한동대학교에서도 창조과학 교과목을 여러 명의 교수들이 팀으로 강의하지만 연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소개되며, 강사에 따라 입장과 표현의 차이는 있겠으나 각 기원과학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존중된다. 젊은 지구론과 창조과학을 동일시하는 비판 방법은 진화론이 주류가 된 현대과학계가 창조론의 과학적 접근 논리를 비판하기 위해 동원하는 방법이며 실제의 창조과학에 대한 올바른 비판이 아닌 것이다. 비판의 내용 중에는 창조과학이 과학을 적대시한다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도 있다. 창조과학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전문성에 대한 비판도 가슴 아프게 들린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비판하는 사람의 전문성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넘어서 비판 대상이 되는 다른 모든 분야 사람들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기에 지나친 비판이다. 그러한 공격적 비판의 자세를 보면서 오히려 그 비판의 정당성까지 동의할 수 없게 되는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다.

기원과학에 있어서의 전문성은 내용의 정확도에는 중요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며,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방향이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노벨상을 받을만한 과학적 업적이 있더라도 무신론적 세계관으로 자신의 기원과학적 입장을 이야기한다면 그 주장은 그 사람의 전문성과 동일하게 공감될 수 없다. 오히려 전문성으로 포장된 세계관은 비전문적인 사람들을 왜곡된 길로 인도할 위험 소지가 있다. 지금 이 시대의 세 사람의 저명한 생물학자들을 예로 들어보자. 영국 옥스포드대학 교수였던 진화생물학자이면서 동물행동학자인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철저한 인본주의자이자 무신론자로서 진화론적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초자연적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반기독교 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원장이자 인간게놈프로젝트 총책임자였던 유전학자 프랜시스 콜린스(Francis Collins)는 진화론을 적극 수용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또한 받아들이는 유신론적 진화론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 교토대학의 의학자이자 유도만능줄기(iPS)세포를 개발하여 2012년에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야마나카 신야(山中 伸弥) 교수는 무신론자이면서도 "생물학을 연구하다 보면 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나 많다"며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낸 바 있다. 여기 예를 든 세 과학자의 공통점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학자라는 점이다. 그러나 신의 존재에 대한 세 사람의 견해는 각각 다르다. 신의 존재를 적극 부인하고 그 환상에서 깨어나라고 외치는 리처드 도킨스, 창조주를 믿지만 진화가 그의 방법이었다고 말하는 프랜시스 콜린스, 신은 믿지 않지만 어렴풋이 그의 존재를 생각하게 된다는 야마나카 신야..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정답을 얻을 수 있을까? 과연 전문가의 세계관은 정답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일까? 아무리 뛰어나고 노벨상을 받을만한 전문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가 가진 세계관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세계관은 옳은 것일 수도 그른 것일 수도 있다. 진화론이 일방적으로 가르쳐지고 진화론 학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금 이 세상에서 그들의 전문성을 내세우면서 그들의 무신론적 세계관까지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라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젊은 지구론과 창조과학에 대한 비판을 등에 업고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 있다. 진화론이다. 진화는 자연의 현상을 잘 설명해주며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으로 우주와 생물을 창조하셨다는 주장이다. 무신론과는 분리된 진화의 개념을 제시하지만, 그것은 몸통을 잘라낸 몸과 같은 허구일 뿐이다. 초월적 창조주의 개입이 배제된 자연 스스로의 존재를 기반으

로 하는 자연주의적 방법론을 채용한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무신론적일 수밖에 없는 진화의 개념으로 창조론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적인 발상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진화론에서 사용하는 진화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아서 주의 깊은 분별이 필요하다. 생물진화에서 말하는 소진화와 대진화의 예가 그렇다. 동일한 생물종 내에서 적응을 통해 다양한 표현형이 나타나는 변화는 자연으로부터 관찰 가능한 현상이다. 진화론에서는 이 현상을 진화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소진화라고 부르지만 창조론에서는 변이 또는 다양성이라고 표현한다. 반면, 대진화는 생물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진화론은 인정하나 창조론은 부정하는 논쟁의 핵심요소이다. 흔히 진화론자가 진화는 자연의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진화(또는 변이)는 될지언정 대진화는 결코 자연현상으로 입증된 바가 없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사막여우를 보며 여우의 적응과 변화를 말하는 것은 과학적이나, 사막여우가 다른 종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닌 진화론적 믿음의 표현이다. 소진화든 대진화든 스스로 발생하였다는 무신론적 대전제가 진화라는 개념에 녹아있기에 진화론에서는 소진화와 대진화의 연결을 당연시한다. 그렇다면 진화라는 어휘만을 창조론에 접목시키는 논리전개 방식은 지극히 작위적이며 심각한 오류이다. 결국 창조와 진화가 병립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은 각각의 본질을 간과한 타협적 시도에 지나지 않으며 창조론의 진정한 핵심 논리를 진화의 자연발생적 개념으로 희석, 훼손시키는 접근이 아닐수 없다. 진화론에서 무신론적 세계관을 걸러내고 진화 메커니즘만 적용하고 싶다면 차라리 진화라는 용어가 아닌 제3의 다른 개념을 만들어 사용해야 옳을 것이다. 진화론의 본질과 근간에는 초월적 창조주를 배제한 자연주의적인 동기가 자리잡고 있기에 창조주의 주체적 동기와의 근본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어지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진화의 개념이 스며드는 문제는, 창조 위에 진화적 메커니즘을 덧입히는 단순한 인위적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타락)의 문제와 구원의 정당성까지 뒤집는 결과로 귀결된다. 창조세계의 회복이 구속의 목적이요 이유라고 한다면 무생물로부터 단세포 생물체를 거쳐 스스로 진화 발생하게 된 인간에 대한 구원이란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인간이 그저 수많은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한 영장류 동물이라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구원(롬6:12-21)이라는 기독교 진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구가 되고 만다.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한 것과(행17:24-27),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한 것도(엡1:4,5) 바울 자신의 근거 없는 아이디어로 이해하라는 주장인 것이다. 진화를 곁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가하는 것은 진화론적 믿음을 과학적 사실로 혼동하고 성경의 권위보다 과학을 더 앞세우는 오판의 결과이며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보다는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이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된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될 정도로 우리 각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초월적 하나님을 선포한 예수님의 말씀(마10:30)은 물론,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으로(시119:105)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독교적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 기독 지성들 사이에 지구와 우주의 연대에 대한 논쟁이 있고 의사소통의 방법에 있어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 한가지는 이것이다. 교회는 진화론의 침투로부터 창조론을 지켜내야 한다. 진화의 본 뜻은 창조주 없이 스스로 존재함을 말하며, 교회가 진화를 수용한다는 말은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그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기독교세계관은 진화를 단호하게 거부하여야 한다. 기독교세계관이 진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근본적 변질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고후 10:5) 과학의 교만이 되는 것임을 깊이 자성하고 스스로 철저히 돌아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5년 4월 30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960,000	인건비	일반급여	3,600,000
	임원회비	990,000		기타급여	589,500
	일반회비	5,215,000		소계	4,189,500
	기관후원금	3,7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550,000
	월보구독료	734,000		사무실관리비	442,000
	세계관사역지원금	7,400,000		통신비	173,140
	CTC후원금	320,000		우편료	64,910
	기타후원금	2,006,849		소모품비	122,990
	VIEW후원금	100,000		비품	17,500
	기타	0		식비	406,300
				복리후생비	583,720
				퇴직연금	293,240
				컴퓨터	2,180,000
				회의비	24,000
				회계용역비	110,000
				기타	221,129
				소계	5,188,929
			연구지원비	종피맹지원금	1,000,000
				CTC후원금	299,175
				세계관사역지원금	7,400,000
				소계	8,699,175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2,500,000
				발송비	1,112,000
	소계	21,475,849		소계	3,612,000
기타수입	기타수입	522,970	기타	기타	500,000
	소계	522,970		소계	500,0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술지인쇄비	3,014,000
	학술지심사비	210,000		학술지발송비	701,880
	학술지게재료	705,000		학술지심사료	910,000
	학회기타수입	0		학회기타	100,000
	소계	1,015,000		소계	4,725,880
당월 수입액		23,013,819	당월 지출액		26,934,024
전월 이월액		35,659,109	차월 이월액		31,738,904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5년 4월 30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1,550,000	인건비	직원급여	1,900,000
	연광고비	55,000,000		소계	1,900,000
			제작비	교정비	160,000
				편집비	300,000
				디자인비	1,188,000
				인쇄비	2,713,260
	소계	56,550,000		소계	4,361,26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5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275,000
	도서판매비	31,200		회계용역비	110,000
	기타수입	184,200		복리후생비	284,500
				퇴직연금	137,700
				회의비	105,600
				식비	32,400
				도서구입비	315,000
				소계	1,260,200
			기타지출	제일기획 광고수수료	2,750,000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4,157,300
				기타	2,410
	소계	2,715,400		소계	6,909,710
당월 수입액		59,265,400	당월 지출액		14,431,170
전월 이월액		2,913,973	차월 이월액		47,748,203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합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매월 보고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4월 30일 마감)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김경현, 김경휘, 김고운, 김봉현, 김샛별, 김성욱, 김영주, 김정원, 김진호, 김형근, 김희원, 박상희, 박원근, 박지만, 생명의강, 안용주, 영음사, 유성욱, 이수형, 정세열, 정필화, 조성진, 조영래, 지경순, 진성자, 최희정, 하태실, 한재승, 함께하는교회, 황귀희 **5천** 공승건,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미정, 김상욱, 김성은, 김성찬, 김승택, 김영윤, 김은경, 김정명, 김정심, 김정준, 김제우, 김태영, 김태윤, 김향아, 김혜창, 노승욱, 노주하, 박광제, 박상균, 박승룡, 박천규,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송호욱, 신기혁, 심정하, 안성희, 우수민, 유은자, 유충열, 윤경숙,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영홍, 이은미, 이인수, 이종혁, 이향숙, 임소연, 임천석, 임춘택, 임형준, 임효숙, 장헌일, 전광학, 전정진, 전충국, 정봉현, 정한궁, 조은아, 조인진,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 정필규, 최원길 **7천5백** 강찬진, 고상섭, 김나실, 김상욱, 김은민, 박대희, 박현빈, 방선기, 이병주, 이세호, 이은순, 이지은, 전영식, 정원길, 정찬주, 진영규 **1만** David Han, 가월현, 강동진, 강민창, 강석현, 강연정, 강은정, 강은주, 강효식, 고길현, 고선옥, 고연경, 고재호, 곽은이, 곽정인, 구준회, 권경호, 권민규, 권순범, 길원평, 김경식, 김경식, 김경원, 김경호, 김경화, 김고운, 김광순, 김근배, 김기헌, 김남임, 김남진, 김동우, 김동욱, 김동준, 김막미, 김미혜, 김범식, 김병국, 김보경, 김봉례, 김상범, 김성경, 김성민, 김성인, 김성진, 김세령, 김세완, 김세중, 김소라, 김승남, 김양호, 김영숙, 김영옥, 김영완, 김영호, 김요한, 김용석, 김원호, 김윤권, 김윤정, 김은덕, 김은영, 김은정, 김은태, 김은혜, 김은혜, 김 일, 김재정, 김정모, 김정일, 김정진, 김정호, 김정화, 김종국, 김준희, 김중훈, 김진성, 김진아,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태호, 김판임, 김 혁, 김현경, 김현정, 김형길, 김혜정, 김홍섭, 김홍제, 김효숙, 나동훈, 나윤숙, 남서희,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마민호, 문제환, 박강국, 박경원, 박기언, 박능안, 박두석, 박두한, 박상호, 박성인, 박성일, 박승호, 박시운, 박애란, 박용성, 박은영, 박은주, 박종원,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지현, 박진규, 박창우, 박해일, 박현경,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세원, 배아론, 배인교, 배지연, 백경은, 백은석, 백현준, 변영승,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서유미, 서정연, 서화진, 성광원, 소종화, 손한나, 손현탁, 송대영, 송종철, 송철호, 송현미, 신경규, 신동민, 신상형, 신성자, 신자영, 신진선, 신찬웅, 신현정, 신현주, 신형균, 신호기, 신효영, 심명섭, 안남주, 안병열, 안석, 안영혁, 안용준, 양성건, 양예찬,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연혜민, 오성호, 오지순, 옥재호, 우현기, 유건호, 유경상, 유경숙,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영준, 유은희, 유지황, 유창은, 유해무, 유화원, 유희진, 윤명심, 윤상헌, 윤숙자, 윤천석, 이갑두, 이 강, 이경숙, 이경직, 이계심, 이권철, 이규현, 이기훈, 이길형, 이동훈,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헌, 이문원, 이봉근, 이상급, 이상기, 이상무, 이상수, 이상환, 이선복, 이성수, 이수연, 이승엽, 이시영, 이언구, 이연경, 이연의, 이요한, 이원배,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희, 이은주, 이은혜,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현, 이종국, 이종환, 이준성, 이지숙, 이지연, 이지연, 이지훈, 이진영, 이학성, 이해리, 이현정, 이호선, 이환일, 임동민, 임동진, 임미림, 임소현, 임수연, 임우진, 임일택, 임재광, 임현영, 장경근, 장슬기, 장승재, 장승화, 장영창, 장옥경, 장은해(양종태), 장인숙, 장진수, 장태준, 전동일, 전명희, 전성구, 전종화, 정경식, 정동섭, 정문선, 정세준, 정용수, 정은희, 정정숙, 정진우, 정현구, 정현주, 정회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백형, 조승희, 조용현, 조은상,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지현, 조현용, 조혜경, 조혜신, 주경식, 진정용, 차봉준, 차유림, 차정규, 최삼열, 최성호, 최세진, 최 영, 최영수, 최윤영, 최진우, 최한빈, 최현식, 최혜연, 최호영, 추진연, 태영숙, 하성만, 하진호, 하현진, 한인관, 한혜실, 한희수, 함부영, 허 연, 허찬영, 허 현, 현승건, 현한나, 홍선호, 홍정석, 홍준호, 황기철, 황도웅, 황세환, 황의서, 황인경, 황태연, 황혜숙, 황혜정 **1만5천** 김선화, 김효순, 유의신, 정상섭, 조영숙, 최동원 **2만** 강대훈, 강용란, 김나경, 김세광, 김수홍, 김승호, 김용식, 김인숙, 노경순, 노용환, 박계호, 배성민, 변우진, 변희지, 석지원, 우시정, 이 건, 이기서, 이명희, 이인아, 이희진, 임 영, 임지연, 전장원, 조창근, 한진영 **3만** 김경민, 김규욱, 김동원, 김방룡, 김지원, 문준호, 박상진, 박신현, 서성록, 양성만, 오의석, 오한나, 우병훈, 이근호, 이은실, 임희옥, 장수영, 조무성, 최용준, 추태화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성민, 김시호, 박문식, 서진희,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6만** 강진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도서관, 최혜경 **7만** 최태연 **8만** 권정아, 김정호, 문석윤 **10만** 김미영, 김의원, 박상은, 손봉호, 송인규, 양인평, 윤완철, 이기섭, 전광식, 채기헌 **12만** 허성식 21만 정영록 **30만** 김승욱 **36만** 이홍구 **100만** 윤주식 **100만6천849** 김대인&박창균 **740만** 무명 11인

계 17,725,849원

기관후원금

5만 개봉교회, 글로벌한가족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새길침례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신반포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참빛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송탄제일교회, 언약교회, 예심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카이스트교회, 흰돌교회

20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40만 삼일교회 **50만** 사랑의교회, 주님의십자가교회

계 3,750,000원

광고후원

삼성전자, 엘타워, I&S법무법인, 홍성사, DCTY, 오하우스코리아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WORLDVIEW NEWS

[교회별 신청] 청소년 기독미디어 캠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개교회에서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사역자를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기독교세계관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영상을 제작하는 청소년 기독미디어캠프를 교회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는 교회수련회의 일정 중 1박 2일간(48시간) 진행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커리큘럼

1일차 프로그램 : 영화감상과 마음열기 / 스마트폰으로 영화 만들기 / 성경적세계관과 스토리텔링 /팀별 시나리오 작업하기

2일차 프로그램 : 촬영 / 편집툴 익히기 / 실습 / 상영회 및 시상식

■ **주관** 기독미디어아카데미 (교육문의 홍정석 간사 02-745-7237, cmca@worldview.or.kr)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www.worldview.or.kr

[학회 보고] 2015년 춘계학술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참석하여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더 풍성한 학문연구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로그인 필수, 회원에 한하여 다운로드 가능) 해당자료집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754-8004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www.worldview.or.kr

[기독 대학원생 모임]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5시! 삼일교회에서 만나요!

젊은 신진학자들을 위한 자리, 기독 대학원생 모임이 삼일교회 C관 2층에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멘토 장수영 교수님(포항공대 산업경영) 및 특별한 게스트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벼운 마음으로 오세요.

■ **일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5시

■ **장소** 삼일교회 C관 2층 (숙대입구역 10번 출구 굴다리 지나 맞은편 오른쪽)

■ **문의** 02-754-8004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페이스북에서 "매거진 월드뷰"를 찾아 팔로우 하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찾아갑니다.

::: 매거진 월드뷰 :::

이매거진 월드뷰 m.worldview.or.kr

페이스 북 https://www.facebook.com/worldviewmagazine

블로그 http://blog.naver.com/cworldview

[사무국 소식]
기독미디어아카데미 홍정석 간사가 결혼합니다!

기독미디어아카데미를 담당하는 홍정석 간사가 오는 7월 4일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건 분과모임 보고]
4/25(토), "의료와 성경적 세계관"

지난 4월 25일 의료보건 분과 모임이 백석예술대학에서 있었습니다. 대자인병원 암센터장이신 김민철 원장님께서 "의료와 성경적 세계관"이란 주제로 발제해 주셨고, 의료인이자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의 존엄성 앞에 어떤 고민과 선택을 해야 하는지와 의학이 좀 더 윤리적이고 진중해야 하며, 절대가치가 공격받고 있는 이 시대에 의료(학)인이 어떻게 가치를 지켜나가야 하는지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좌담회]
5/7(목), 존 주니어 위티의 좌담회

지난 5월 7일 한동대학교 법률대학원과 공동주최로 "하나님의 정의: 다원주의 시대에 정의란 무엇인가" 좌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 법사학자인 존 위티 교수(미국 에모리대학 로스쿨, 법과종교연구소 소장)의 좌담회에서는 종교 없는 법은 무의미하고 법에 있어서도 종교가 중요하며, 법과 종교의 연구가 변증법적 조화를 이뤄야 하고 기독교인은 이 가운데 소명을 발견하며 이를 위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강조하였습니다.관련 영상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6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1	16	
2	17	
3	18	
4	19	
5	20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 공동칼럼 발행
6	21	
7	22	
8	23	
9	24	
10	25	〈월드뷰〉 7월호 발행
11	26	오후 3시, 삼일교회 C관, 대학원생 모임
12	27	
13	28	
14	29	
15	30	학술지 〈신앙과 학문〉 20권 2호 발행

※ 6/20(토)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 공동칼럼 발행**
※ 6/25(목) **〈월드뷰〉 7월호 발행**
※ 6/26(금) 오후 3시, 삼일교회 C관, **대학원생 모임**
※ 6/30(화) 학술지 **〈신앙과 학문〉 20권 2호 발행**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의원 (백석대 前 부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강인 (엘타워 대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공동회장 및 이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감사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실행위원회

위원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부위원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신국원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1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사무국

사무국 본부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대표간사	신효영 간사 홍정석, 김고운

후원교회 및 단체

100주년기념교회, 개봉교회, 광주새언약교회, 금성교회, 글로벌한가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대구성덕교회, 마포중앙교회, 백석대학교, 부천참빛교회, 빛과소금교회, 산정현교회, 삼일교회, 새길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중앙교회, 송탄제일교회, 수영로교회, 신반포중앙교회, 안성중앙대학교회, 언약교회, 예심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쥬빌리채플, 천안중앙장로교회, 카이스트교회, 환돌교회 (가나다 순, 총30교회)

기독교학문연구회(학회)
학회장(연구본부장) :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국제 · 대외협력부회장 : 박신현 (고신대 교수), 연구부회장 : 송태현 (이화여대 교수), 학술부회장 : 손병덕 (총신대 교수)
감사 : 김홍섭 (인천대 교수), 문준호 ((재)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 연구부교수) / 총무 : 임춘택 (경남대 교수)
학회이사 : 강영안 (서강대 교수), 김승욱 (중앙대 교수), 윤완철 (카이스트 교수),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조무성 (고려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황호찬 (세종대 교수)
분과장 : 경제/경영 분과장 : 이홍구 (건국대 교수), 교육 분과장 : 박영주 (아신대 교수), 문화/예술 분과장 : 서성록 (안동대 교수), 법학 분과장 : 조영길 (K&S법무법인 대표), 사회복지 분과장 : 이상무 (평택대 교수), 상담/심리 분과장 : 전요섭 (성결대 교수), 역사 분과장 : 권태경 (총신대 교수), 의학 분과장 : 김지원 (백석대 교수), 융합 분과장 : 이우성 (STEP1), 철학 분과장 : 양성만 (우석대 교수)

운동본부
본부장 : (공석)
대외협력위원장 :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국제협력위원장 : (공석)/ 중국사역위원장 : 정수균 (선교사)/ 지역관리위원장 : 박신현 (고신대 교수)/ 대학청년위원장 : 최용준 (한동대 교수)/ 언론위원장 : 강진구 (고신대 교수)/ 세계관사역위원장 : 김승욱 (중앙대 교수)

월드뷰* 대표주간 :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발행인 : 김승욱 (중앙대 교수)
편집위원 :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정효 (이화여대 교수), 김태황 (명지대 교수), 박상은 (샘병원 원장),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신국원 (총신대 교수), 이승구 (합신대 교수), 조성돈 (실천신대 교수), 조영길 (K&S 법무법인),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우종학 (서울대 교수)
편집인 : 신효영, 교정/교열 : 김선경, 디자인 : 황정희, 제작 : (주)세상바로보기
도서출판 CUP* 대표 : 김혜정, 마케팅실장 : 윤여근
CMCA 프로덕션* AD : 홍정석

교육본부
본부장 : (공석),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 신국원 (총신대 교수), 교재개발위원회 위원장 : 최태연 (백석대 교수)

기독미디어아카데미 Christian Media & Contents Academy* 고문 :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 원장 : 조정민 (베이직커뮤니티 교회 담임목사)
운영위원 : 신국원 (총신대 교수), 이승구 (합신대 교수), 강진구 (고신대 교수), 유지은 (PD)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VIEW* 원장 : 양승훈, 이사 : 조영택, 김명준, 박신일, 김주영, 주임교수 : 전성민, 간사 : 이계현, 유승훈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 CTC* 대표 : 유경상, 팀장 : 안성희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 주세요

"그 장로님은 아침마다 그렇게 조는 거야.
설교시간만 되면, 그것도 찬양대석 맨 앞에 앉아서.
속으로 생각했지. 처음에는 '오늘만 그러시겠지,
나이가 있으시니 이해하자',
매번 조는 모습을 보니까 '장로씩이나 되어서 그것도 저 자리에
앉아 예배시간에 저렇게 졸면 덕이 되겠어?'
그 다음부터는 인사도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
'아침예배, 사람도 얼마 없는 찬양대 지키지 말고
차라리 그냥 좀더 자고 오후예배 뒷자리에나 앉으시지'
속으로 엄청 비꼬았지.
어느 날
생각보다 엄청 일찍 교회에 갔는데
누군가
이른 아침부터 교회 구석구석을 땀을 뻘뻘 흘리며 쓸고 닦는 거야.
그 장로님이...
예배당이 깨끗해도 그냥 누군가 했으려니 생각했지
그렇게 일찍부터 청소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
이후로는 그분 조는데도 마음이 그냥 따뜻하더라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회당 지어야 하는데 수중에 가진 건 없어
길 가다 멋진 돌덩이가 보이면 주워다가 냇가에서 깨끗이 씻어
그 먼 길, 머리에 이고 지고 교회당 짓는데 써 달라며
가져오신 할머니들도 있었다고.
어렵고 가진 것 없던 시절, 교회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돈이 없어 등록금도 못내고 기일만 다가오는데
내 교회 사람도 아닌 생판 모르는 분이 몇 다리를 건너
선뜻 내주셨다는,
누군지 알지 못해 아직 감사인사도 못 전했다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이들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의 따뜻한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결국 천국은
믿음대로 가고,
소망대로 이뤄지고,
사랑만이 남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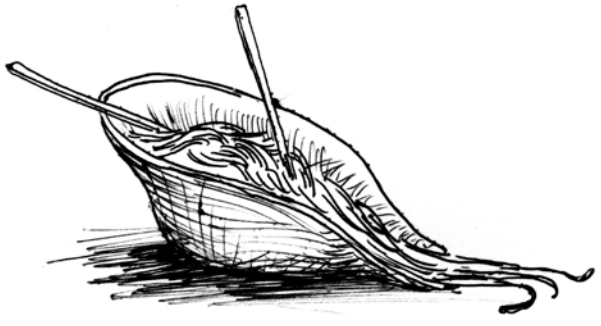
그 사랑, 오늘 나는 어떻게 뿌리고 있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없는 형편에도,
날마다, 꾸준히,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 미담, 내가 되어 보는 건 어떤가요?

Illust by 신선영

국수

잔칫집에서 갑돌이가 국수를 아홉 그릇이나 먹어 치웠다.
그것을 본 을식이가 "한 그릇 더 먹어. 열 그릇 채워야지!" 했다.
갑돌이는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뭐 돼진 줄 알아?" 했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문지방을 나서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나둥그러졌다.
먼지를 툴툴 털고 일어서면서 갑돌이가 투덜거리는 말: "밀가루 음식은 역시 끈기가 없어!"



Illust by 김규상